

최치원(崔致遠) 산문에 대한 재론

유수빈*

- I. 서론
- II. 재당기(在唐期) 산문
- III. 귀국후(歸國後) 산문
- IV. 결론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최치원(崔致遠, 857~?)의 산문을 변려문(駢麗文) 일색으로 평가했던 기존의 시각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 산문의 문체와 성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데 있다. 재당 시기(在唐時期) 고병(高駢, 821~887)의 막하에서 지은 글 모음집인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을 근거로, 과거의 문인부터 현대의 연구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최치원을 의심할 나위 없는 변려문 작가로 인식해왔다. 그러나 그가 신라로 귀국한 이후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 『고운집(孤雲集)』과 『고운속집(孤雲續集)』에는 종종 정격 변려문이 아닌 글들이 포착된다. 본고에서는 정격 변려문만을 보이던 재당(在唐) 시기와는 달리 신라 귀국 이후의 산문에서는 조금씩 정격에서 벗어난 문체가 나타난다는 사실 자체가 그 비중을 막론하고 매우 중요한 현상이라고 보고, 그의 산문에서 변려문적 요소와 고문적 요소를 처음으로 고구하고자 시도하였다.

우선 최치원의 산문에서 변려문적 요소와 고문적 요소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변려문적 요소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계원필경집』에 실린 글을 통해 평측(平仄)과 대장(對仗)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도 그와 관련된 고사(故事)를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구체화하는 기교를 살필 수 있었다. 이어서 『고운집』과 『고운속집』의 글을 통해 그의 귀국 후 산문을 고찰하였다. 이때 해당 시기 산문과 같은 문체인 주의류(奏議類)의 경우와 다른 문체인 잡기류(雜記類)·비지류(碑誌類)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주의류의 경우, 형식적으로 해당 시기 산문과 차이가 나지 않지만, ‘제잠(鯤岑)’이나 ‘신학(蜃壑)’ 등 ‘신라’를 의미하는 용어를 최초로 고안하여 사용했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중국에 보내는 표문(表文)에서조차 신라에 대한 주체성이 드러난다는 사실은, 그의 동인의식(東人意識) 고찰에 있어 진실보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잡기류와 비지류의 경우, 변려문의 엄격한 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체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용의 출처가 되는 해당 원문을 가감 없이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대장과 평측 규칙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대화나 서사 등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과감히 자수(字數)의 제한까지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는 거시적 차원에서 당시 중국 문단의 상황을, 미시적 차원에서는 중국 문인과의 직·간접적 교류를 제시할 수 있다. 요컨대, 적어도 당대(唐代)까지는 변려문과 고문의 관계가 그리 배타적이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중국 문인의 문체를 직·간접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문체의 글을 탄생시켰다고 하겠다.

본고는 최치원 산문의 문체와 성격을 재고찰하려는 노력의 소산이다. 본고를 발판으로 삼아 그의 산문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보다 세밀한 관찰과 분석이 진행된다면, 최치원의 위상과 한국 한문학의 역사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

핵심어: 최치원(崔致遠), 변려문(駢麗文), 고문(古文),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 『고운집(孤雲集)』, 동인의식(東人意識)

1. 서론

창강(滄江) 김택영(金澤榮)의 발언¹⁾ 이래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 1287~1367)이 고문(古文)을 창도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설을 따르자면 중국의 고문 창도자라 할 수 있는 한유(韓愈, 768~824)에 비해 한반도 내 고문의 출현 시기가 지나치게 늦어지는 까닭에, 그 이전 11세기에 이미 고문에 대한 인식과 창작이 있었음을 밝힌 논의가 제출되었다.²⁾ 물론 ‘창도’의 공은 익재(益齋)에게 돌려야 하겠지만 이전 시기에 이미 문체로서의 고문이 나타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필자도 동의하는 바이며, 더 나아가 신라 말과 고려 초의 연속성 또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고려 초는 신라에서 귀화한 문인들이 문단을 주도했으므로, 왕조는 다르지만 그 문풍은 이어졌다. 과연 11세기 이전 신라에서는 고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가?³⁾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에 실린 글을 근거로, 과거의 문인부터 현대의

1) 金澤榮, 『韶澗堂集』文集 권8, <雜言四>, “吾邦之文, 三國高麗專學六朝文, 長於駢儷, 而高麗中世, 金文烈公特爲傑出, 其所撰“三國史”, 豐厚樸古, 綽有西漢之風. 其末世, 李益齋始唱韓歐古文.”

2) 김혈조, 「고려 중엽 한문 산문의 문체」, 『한문학보』 제18집, 우리한문학회, 2008; 서정화, 「益齋 李齊賢의 古文倡導에 대한 재검토」, 『대동한문학』 제32집, 대동한문학회, 2010; 정선모, 「唐·宋古文의 初期受容樣相考: 對北宋外交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제48집, 한국한문학회, 2011.

3) 본 논의에 앞서 운·산문과 변려문의 관계에 대해, 그리고 고문과 변려문의 관계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운·산문과 변려문의 관계의 경우, 선행 연구에서는 대개 변려문을 ① 운문 또는 산문의 하위 갈래에 두거나, ② 운·산문과 동등한 지위 또는 운·산문의 중간자로 파악하였는데, 박우훈, 「駢儷文과 韻·散文의 關係」(『중국산문연구집간』 제2집, 한국중국산문학회, 2012)에서는 운문과 산문은 文類에 해당하는 반면 변려문은 변려체로 쓰인 글로서 文體에 해당하므로, 변려체는 산문과 운문에 모두 쓰일 수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펼쳤다. 즉, 운문 및 산문과 변려문이 다른 층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고는 변려문이 문체의 층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운문(verse)’과 ‘산문(prose)’이라는 용어 자체가 서양 문학에서 발생한 개념이라 한문학에 일대일로 대응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다. 한문학의 전통을 고려해 보았을 때, 운·산문과 변려문의 관계를 논의하는 것보다 오히려 고문과 변려문의 관계를 논의하는 것이 더 실상에 부합한다. 왜냐하면 ‘古文’이라는 용어 자체가 당시의 時文이었던 ‘변려문’과 상호대립하는 개념으로서 탄생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변려문’과 ‘고문’을 서로 대립하는 개념으로 파악한다. 이에 고문은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고문이 아니라, 문체적 측면에 한정된 고문이다. 그리고 변려문과 고문을 넓은 의미의 산문에 포함시켜 논의해 온 전통을 고려하여, 편의상 변려문과 고문의 상위 갈래로서 ‘산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연구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최치원을 의심할 나위 없는 변려문(駢麗文) 작가로 인식해왔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계원필경집』은 고병(高駢, 821~887)의 막하에 있던 4년간(880~884) 지은 공문서 모음집이며, 1만여 편중에 340여 편만을 남긴 선집이다.⁴⁾ 이는 단 0.034%에 불과한 수치이다. 즉, “열에 한둘도 남지 않았다.[十無一二]”라는 그의 발언이 전혀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엄격히 정선한 문집인 것이다. 단 4년에 해당하는 이 시기의 글, 그것도 엄격히 정선한 공문서만을 보고서 그의 산문을 통틀어 ‘변려문’이라는 한 가지 잣대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과연 『고운집』과 『고운속집』에 보이는 그의 귀국 후 산문도 변려문 일색이라 평가할 수 있을까. 단적인 예로서 그가 신라에 돌아온 직후 886년 정월에 헌강왕(憲康王)에게 『계원필경집』을 진상하면서 함께 올린 글 <계원필경서(桂苑筆耕序)>⁵⁾의 일부를 살펴보자.⁶⁾

- | | |
|-------------------------------|---|
| [1] 右臣 自年十二 離家西泛 | 신은 나이 12세에 집을 나와 중국으로 건너갔는데, |
| [2] 當乘桴之際 亡父誡之曰 | 배를 타고 떠날 즈음에 망부(亡父)가 훈계하기를, |
| [3] 十年不第進士 則勿謂吾兒 吾亦不謂有兒 | “10년 안에 진사(進士)에 급제하지 못하면 나의 아들이라 말하지 말거라. 나도 아들이 있다 말하지 않을 것이니. |
| [4] 往矣勤哉 | 가서 부지런히 노력하여 |

4) 최치원, 『계원필경집』, <桂苑筆耕序>, “及罷微秩, 從職淮南, 蒙高侍中專委筆硯, 軍書輻至, 竭力抵當, 四年用心, 萬有餘首, 然洵之汰之, 十無一二. 敢比披沙見寶, 粗勝毀瓦畫墁, 遂勒成『桂苑集』二十卷.”

5) 최치원, 『계원필경집』, <桂苑筆耕序>.

6) 본고에서는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영인한 『崔文昌侯全集』을 주된 텍스트로 하되 崔致遠 著, 李時人·詹緒左 編校, 『崔致遠全集』上·中·下, 上海古籍出版社, 2018을 참고하였다. 번역은 이상현, 『계원필경집』 1·2, 한국고전번역원, 2009; 이상현, 『고운집』, 한국고전번역원, 2009; 이우성 교역, 『신라 사산비명』, 아세아문화사, 1995; 최영성, 『교주 사산비명』, 이른아침, 2014을 참고하였다. 이하 동일.

無隳乃力

게을리하지 말거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유학을 떠나기 직전 최치원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자주 인용되는 대목이다. 그런데 그 내용은 차지하고 형식에 주목하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변려문의 특성 및 요건이 첫째, 사륙(四六)과 대장(對仗)의 구식(句式), 둘째, 평측(平仄)의 강구(講究), 셋째, 용진(用典)과 수사(修辭)7)임에 반해, 이 글에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 우선, 부친의 훈계에 해당하는 [3]이 총 3구로 이루어져 있어 두 구끼리 상호대칭을 이루지 못하며, 사륙의 구식도 아니다. [1]은 표면적으로 쌍사식(雙四式)이지만 출구가 1·3식(自/年十二)인 반면 대구는 2·2식(離家/西泛)이라 대칭 형태가 아니며, [2] 역시 표면적으로 쌍오식(雙五式)이지만 출구가 1·4식(當/乘桴之際)인 반면 대구는 2·3식(亡父/誠之曰)이라 대칭 형태가 아니다. 다음으로 평측의 경우, [1]~[3]에서는 평측이 맞지 않으며8), [4]에서는 ‘往矣勤哉, 無隳乃力.’9)으로 평측을 지키고 있으나 ‘矣’나 ‘哉’와 같은 허사가 절주점에 위치하여 정격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용진의 경우, [1]~[4] 전체에서 전혀 진고를 사용하지 않은 채 평담한 어조로 서술하였다. 이는 사소한 균열로 보일 수 있겠으나, 『계원필경집』 소재 글은 이러한 균열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은 채 완전한 형식미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현상이다.

<계원필경서>뿐만 아니라, 『고운집』과 『고운속집』의 글에는 종종 정격 변려문이 아닌 글들이 보인다. 선행 연구에서 사산비명(四山碑銘)에 고문(古文)의 문체가 일부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1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7) 張仁靑, 『駢文學』上, 臺北: 文史哲出版社, 1984, 91~306면; 莫道才 主編, 『駢文觀止』, 北京: 文化藝術出版社, 1997, 1~15면.

8) 변려문의 평측 규칙은 王力, 『古漢語通論』, 香港: 中外出版社, 1976, 149~150면; 莫道才 主編, 앞의 책, 8면 참조. 간단히 말하자면, 첫째, 상대되는 구의 節奏點의 평측은 서로 반대가 되어야 하고, 둘째, 매구 끝자의 평측은 서로 반대가 되어야 하며, 셋째, 上聯 末句의 끝자와 下聯 首句의 끝자는 평측이 서로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9) 본고에서 글자 위의 ○는 평성을, √는 측성을 표시한다. 이하 동일.

10) 이구의, 『崔致遠의 ‘朗慧和尚碑銘’攷』, 『동방한문학』 제25집, 동방한문학회, 2003, 139면; 『崔致遠의 ‘鳳巖寺智證大師碑文’攷』, 『한민족어문학』 제42집, 한민족어문학회, 2003, 35면, “이 碑銘의 문체는 짝을 이룬다는 점에서는 駢麗體이지만, 그 記述을 보면 古文體를 많이 수용했다. 이 비명은 『桂苑筆耕』의 문체와는 상당히 다르다.”; 심경호, 『한국의 석비문과 비지문』,

의 산문에 나타나는 변려문과 고문의 미묘한 양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논의는 아직 없었다. 본고에서는 정격 변려문만이 보이던 재당기(在唐期)와는 달리 신라 귀국 이후의 산문에서는 조금씩 정격에서 벗어난 문체가 나타난다는 사실 자체가, 그 비중을 막론하고 매우 중요한 현상이라고 본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의 산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그의 고문 창작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처음으로 시도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 후기에 주목되는 현상이 있다. 바로 『계원필경집』의 중간(重刊)이다.¹¹⁾ 『계원필경집』의 유포본(流布本) 중 하나인 정리자본(整理字本)은 서씨목활자본(徐氏木活字本)을 바탕으로 간행된 것인데,¹²⁾ 서씨목활자본은 서유구(徐有榘, 1764~1845)가 호남관찰사(湖南觀察使)로 있을 때 홍석주(洪奭周, 1774~1842)의 집에 소장하고 있던 『계원필경집』을 빌려 인출한 것을 가리킨다. 1834년 서씨목활자본을 간행할 당시 『계원필경집』은 거의 일실되어 장서가들마저 그 문헌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¹³⁾ 이때 홍석주는 최치원의 문장을 사륙변려문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성격을 ‘화려하면서도 들뜨지 않음[多華而不浮]’으로 규정하고 특히 <격황소서(檄黃巢書)>에 대해 ‘결코 교묘하게 아로새기려 한 것이 아님[絕不以雕鏤爲工]’으로 평가함으로써 고문(古文)의 요소를 발견하여 『계원필경집』중간의 당위성을 확보하였다.¹⁴⁾ 이러한 사실은 ‘변려문 작가’로 낙인찍힌

일조각, 2021, 177면, “최치원이 작성한 四山碑銘 가운데 <大嵩福寺碑銘>은 서를 변문으로 작성했고, 다른 세 비명은 고문과 변문의 혼용 문체를 이용했다.”

11) 이와 관련하여 이성호, 「홍석주의 고문론과 『계원필경집』 중간의 의미」, 『한국사상과 문화』 제78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15가 참조된다.

12) 『계원필경집』의 판본에 대해서는 李仁榮, 「古書雜記」, 『春秋』 제2권 제6호, 朝鮮春秋社, 1941, 189~198면; 柳鐸一, 「桂苑筆耕集의 文獻學的 照明」, 『孤雲의 思想과 文學』, 新知書院, 1977, 335~393면 참조.

13) 李圭景, 『五洲衍文長箋叢稿』 經史篇 論史類, <崔文昌事蹟辨證說>, “『筆耕集』, 藏書家, 竝稱無傳, 先輩俱惜其見佚. 歲癸巳【純祖三十二年, 卽清道光十二年也】., 徐五費尙書【有榘】, 借淵泉 洪相公【奭周】所藏, 卽自永安都尉【柱元】相傳者也. (….) 公去後, 歷千有餘載, 以此將絕之書, 復傳於幾千百年, 五費公, 景仰前賢, 貽惠來嗣者, 豈不美哉?»; 徐有榘, 『金華知非集』 권3, <校印桂苑筆耕集序>, “據進表, 是集之外, 復有今體賦一卷, 今體詩一卷, 雜詩賦一卷, 中山覆篋集五卷. 『唐·藝文志』則稱『桂苑筆耕』二十卷, 文集三十卷, 而他皆不傳, 唯是集屢經鈔印, 板刻舊佚, 搨本亦絕罕.”; 洪奭周, 『淵泉集』 권19, <桂苑筆耕後序>, “余嘗見近代人所撰『東國書目』, 有載『中山覆篋集』者, 徧求之, 終不可得. 唯『桂苑筆耕』二十卷, 爲吾家先世舊藏, 自童幼時知珍而玩之. 然間以語人, 雖博雅能文而好古者, 亦皆言未曾見, 然則是書也, 幾乎絕矣.”

14) 홍석주, 위의 글, “世或謂古文皆駢儷四六, 殊不類古作者, 公之入中國, 在唐懿僖之際, 中國

최치원을 새로이 바라볼 여지를 제공해준다.

II. 재당기(在唐期) 산문

최치원의 산문에서 변려문적 요소와 고문적 요소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선 변려문적 요소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전술하였듯이 『계원필경집』은 최치원이 재당 시기 고병(高駢) 막하에서 지은 글을 정선한 것으로, 변려문의 형식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 그의 재당기 산문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최치원의 재당기(在唐期) 산문 개관

| 문체 | | 편수 | 출전 |
|----|----|----|------------------------------|
| 表 | | 20 | 『계원필경집』 권1·권2 |
| 啓 | | 7 | 『계원필경집』 권17·권18·권20 |
| | | 1 | 『고운집』 권1 |
| 狀 | 狀 | 40 | 『계원필경집』 권3·권17·권18·권19·권20 |
| | 奏狀 | 20 | 『계원필경집』 권4·권5 |
| | 堂狀 | 10 | 『계원필경집』 권6 |
| 別紙 | | 94 | 『계원필경집』 권7·권8·권9·권10·권19·권20 |
| 檄書 | | 4 | 『계원필경집』 권11 |
| 書 | 書 | 8 | 『계원필경집』 권11·권16 |
| | 雜書 | 10 | 『계원필경집』 권19 |
| 委曲 | | 20 | 『계원필경집』 권12 |
| 舉牒 | | 50 | 『계원필경집』 권13·권14 |
| 齋詞 | | 15 | 『계원필경집』 권15 |
| 祭文 | | 5 | 『계원필경집』 권16·권20 |
| 記 | | 2 | 『계원필경집』 권16 |
| 疏 | | 2 | 『계원필경집』 권16 |
| 합계 | | | 308편 |

之文, 方專事駢麗, 風會所趨, 固有不得而免者. 然觀公所爲辭, 往往多華而不浮, 如「檄黃巢」一篇, 氣勁意直, 絕不以雕鏤爲工, 至其詩, 平易近雅, 尤非晚唐人所可及.”

그 문체는 표(表)·계(啓)·장(狀)·주장(奏狀)·당장(堂狀)·별지(別紙)·격서(檄書)·서(書)·위곡(委曲)·거첩(學牒)·제사(齋詞)·제문(祭文)·기(記)·소(疏) 등 종류가 다양하지만, 대체로 주의류(奏議類)에 해당한다. 지면 관계상 각 작품을 모두 살펴볼 수는 없으므로, 대작(代作) <태위의 직책에 올려 준 것에 대해 사례한 표문[謝加太尉表]>과, 자작(自作) <태위에게 처음 올린 글[初投獻太尉啓]>¹⁵⁾을 대표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¹⁶⁾

먼저 <태위의 직책에 올려 준 것에 대해 사례한 표문[謝加太尉表]>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臣某言。今月某日，宣慰使供奉官嚴遵美至，奉宣聖旨，慰諭臣及將校等，並賜臣勅書手詔各一封，加臣檢校太尉，依前充淮南節度使兼東面都統者。

신(臣) 모(某)는 아뢰입니다. 금월(今月) 모일(某日)에 선위사(宣慰使) 공봉관(供奉官) 엄준미(嚴遵美)가 와서 선유(宣諭)한 성지(聖旨)를 받들건대, 신과 장교(將校) 등을 위유(慰諭)하는 한편, 신에게 칙서와 수조(手詔) 각 1봉(封)씩을 내려 검교(檢校) 태위(太尉)에 올려 주는 동시에, 종전대로 회남 절도사(淮南節度使) 겸(兼) 동면도통(東面都統)에 임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 仰窺鳳詔

봉조(鳳詔)를 우러리보며

15) 최치원, 『계원필경집』 권2: 권17.

16) 최치원의 변려문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그 문체와 형식미에 대해 이미 논의된 바 있다. 김중렬, 「崔致遠 文學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4, 155~162면; 김문기, 「崔致遠의 四山碑銘 연구: 실태조사와 내용 및 문체분석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 제15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987, 170~177면; 이영희, 「羅·麗代 駢儷文 研究」,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45~64면; 홍우흠, 「『桂苑筆耕』 所載 崔孤雲 駢文小考」, 『한국한문학과 유교문화』, 아세아문화사, 1991, 3~18면; 유영봉, 「『四山碑銘』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13~20면; 이구의, 『최고운문학연구』, 아세아문화사, 2005, 392~564면; 심경호, 「한국한문학의 변문 활용 문체와 그 역사문화상 기능」, 『한국한문학연구』 제77집, 한국한문학회, 2020, 238~239면; 심경호, 앞의 책, 175~193면, 278~306면 참조. 그러나 모두 일부 구절을 예시로 드는 것에 그쳐, 한 편 전체에 걸쳐 그 형식적 완성성이 어떻게 이어지는지와 그러한 형식미가 내용 전개 방식에 있어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등은 아직 논구된 적 없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 산문에 나타나는 고문적 요소가 지나는 위상과 특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그 변려문이 어떤 성취를 이룩하였는지를 입증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에 두 작품을 선정하여 全文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려문의 특성은 비단 이 두 작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원필경집』 소재 글에 전 반적으로 나타난다.

謂對龍顏 용안(龍顏)을 대하는 듯합니다.
 寵榮極而何力負山 은총과 영광이 지극하나 무슨 힘으로 태산을
 鑿어지겠습니까.
 戰灼深而自容無地 황공하기 그지없어서 몸 둘 곳을 모르겠습니다.
 臣某 誠抃誠感 신 모는 참으로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頓首頓首 머리를 조아릴 뿐입니다.

[3] 臣伏以 大司馬之威權 百官所仰 신이 삼가 살피건대,
 대사마의 위권(威權)은 백관이 우러러
 보는 바요,
 上將軍之法令 十道皆遵 상장군의 법령은 십도(十道)가 모두
 따르는 바입니다.
 豈唯整戢五兵 어찌 오병(五兵)을 정비하고 단속할
 뿐이겠습니까.
 實在諧和七政 실로 칠정(七政)을 조화롭게 하는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況當今日 하물며 오늘날과 같은 상황을 맞이서는
 宜屬全材 마땅히 완전한 인재에게 맡겨야 할 것
 입니다.

[4] 如臣者 德乏潤身 신과 같은 자로 말하면,
 덕(德)은 몸을 윤택하게 하기에 부족하고,
 智虧周物 지혜는 사물을 두루 살피기에 미흡하며,
 於儒則筆慙五色 유(儒)에 있어서는
 오색필(五色筆)을 대하기가 부끄럽고,
 在武則劍敵一夫 무(武)에 있어서는
 한 사람만을 상대할 검을 지니고 있을 뿐입니다.
 但以 荷籠天庭 단지 천정(天庭)의 은총을 받아
 分憂水國 수국(水國)의 근심거리를 분담하여
 擁旄重寄 榮冠絕於一時 백모(白旄)를 쥐고 중책을 맡아
 한 시대에 으뜸으로 영광을 누리고,
 仗鉞專征 冀折衝於萬里 황월(黃鉞)을 잡고 정벌을 오로지하여
 만 리 밖에서 절충(折衝)하기를 소망하였는데,

幸逢聖鑑
得盡忠誠

다행히 성감(聖鑑)을 만나서
충성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5] 今者 已率雄師
將誅巨猾
征旗指路 遠趨堯日之光
戰艦凌波 方託舜風之力
豈期 王人遠降
帝命俄臨
獎其外鎮之微勞
授以上司之劇任
未著緇衣之美
旋叨錦被之榮
況乃 兼制利權
廣潤軍食
瑞節不移於南兗
兵符亦結於東甌
將何異能
勝此寵寄

지금 웅건한 군대를 거느리고
장차 원흉을 주륙하려 하여,
정기(征旗)가 길을 향하면서
멀리 요일(堯日)의 빛을 따르고,
전함이 물결을 박차면서
바야흐로 순풍(舜風)의 힘을 의탁하려는 때에,
왕인(王人)이 멀리 내려와
제명(帝命)을 내리며,
외진(外鎮)의 사소한 수고를 장려하고
상사(上司)의 막중한 임무를 수여할 줄이야
어찌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치의(緇衣)의 아름다움은 드러내지 못한 채,
단지 비단옷을 걸치는 영광만 외람되게 입었습니다.
더구나 이권을 아울러 장악하고
군량을 널리 조달하게 하면서,
서절(瑞節)이 남쪽 연주(兗州)를 떠나지 않게 하고
병부(兵符)가 동쪽 번두리까지 관할하게 하였으니,
장차 무슨 특별한 재능으로
이 막중한 소임을 감당하겠습니까.

[6] 謹當 冰爲夕飯
藥作朝食
褰帷則面撫蒸黎
建旆則身先士卒
群寇既 蝟毛而起
偶恣俯張
諸侯必 馬首是瞻

삼가 저녁에는 얼음물을 마시고
아침에는 소태를 씹으면서,
수레의 휘장을 걷어 올릴 적에는
백성들을 마주하여 위무(慰撫)하고,
군대의 깃발을 세울 적에는
몸소 사졸들의 앞장을 서야 마땅할 것입니다.
지금 못 도적들이 고슴도치 털처럼 일어나서
제멋대로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제후가 된 처지에서는 반드시 말 머리만을
쳐다보고 진진하여

| | |
|---|--|
| 共成翦滅 唯力斯視 何心自安 必也 臨亂忘身 見危致命 仰解焦勞之念 粗伸式遏之功 | 다 함께 섬멸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모두 발휘 해야 마땅할 터인데, 어떻게 혼자 편히 있을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필코 난리를 당하여 자기 몸을 잊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 목숨을 바치는 정신으로 우러러 노심초사하시는 폐하의 염려를 풀어 드리고, 식알(式遏)의 공을 조금이나마 세워 보려고 합니다. |
|---|--|

| | |
|--|--|
| [7] 臣 既當下瀨屯師 行欲中流設誓 枕雕戈而輟寐 跡寄轅門 瞻帝座而馳誠 魂飛輦路 | 신이 하뢰(下瀨)에 군사를 주둔하고서 중류(中流)의 맹서를 하려는 지금, 창을 베개 삼아 잠 못 들며 몸이 원문(轅門) 에 매여 있으나, 제좌(帝座)를 우러러 정성이 솔리며 혼(魂)은 연로(輦路)에 날아갑니다. |
|--|--|

[8] 未獲稱謝行在, 無任感恩戀聖榮擘戰懼之至. 謹因宣慰使嚴遵美廻, 附表陳謝以聞. 臣某誠感誠懼, 頓首頓首謹言

행재(行在)에 나아가 사례드리지는 못합니다마는 성은(聖恩)에 감격하여 너무 나도 기쁘고 황공한 심정을 가눌 수 없기에 삼가 선위사 엄준미가 돌아가는 편에 표문을 부쳐 올려 사례하는 바입니다. 신 모는 참으로 감격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머리 조아려 삼가 아뢰입니다.

이는 881년¹⁷⁾ 최치원이 고병을 대신하여 태위의 직책을 내려주신 황제께 감사를 표하기 위해 지은 글이다. 이 글은 제1단의 서두와 제8단의 말미를 제외하고는,¹⁸⁾ 독립구(獨立句)가 전혀 없이 모두 정연한 대장을 이루며

17) 『계원필경집』의 작품 연대는 方曉偉, 『崔致遠思想和作品研究』, 揚州: 廣陵書社, 2007, 83~89면 참조.

18) 변려문은 엄격한 형식이 요구되지만, 서두와 말미에는 예외적이었다. 특히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上行文書의 경우 서두에는 해당 문서를 올리게 된 실질적인 이유를, 말미에는 감사

평측을 엄격히 지키고 있다.

먼저 사륙의 구식(句式)의 경우, 변려문의 기본구조라 할 수 있는 4·4구, 6·6구, 4·6·4·6구, 6·4·6·4구가 주를 이루되 제4단의 ‘於儒則筆慙五色; 在武則劍敵一夫’, 제5단의 ‘獎其外鎮之微勞; 授以上司之劇任’과 ‘瑞節不移於南充; 兵符亦緝於東陲’, 제6단의 ‘褰帷則面撫蒸黎; 建旆則身先士卒’에서는 7·7구를 사용하여 변화를 추구하였다. 제2단에서는 ‘寵榮極而何力負山; 戰灼深而自容無地’와 같이 8·8구를 사용하여 더 확장된 형태를 보인다.

대장의 형식을 살펴보면, 쌍구대(雙句對)가 기본을 이루는 가운데 제3단의 ‘大司馬之威權 百官所仰; 上將軍之法令 十道皆遵’, 제4단의 ‘擁旄重寄 榮冠絕於一時; 仗鉞專征 冀折衝於萬里’, 제5단의 ‘征旗指路 遠趨堯日之光; 戰艦凌波 方託舜風之力’, 제7단의 ‘枕彫戈而輟寐 跡寄轅門; 瞻帝座以馳誠 魂飛輦路’에서는 격구대(隔句對)도 다채롭게 사용하였다. 제6단의 ‘群寇既蝟毛而起 偶恣俯張; 諸侯必馬首是瞻 共成剪滅’은 4·4구의 대장을 이루는 동시에 영자(領字)에 해당하는 ‘群寇既’와 ‘諸侯必’까지 대장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대장의 의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동물로 대를 이룬 제2단의 ‘鳳詔; 龍顏’과 제6단의 ‘蝟毛; 馬首’, 숫자로 대를 이룬 제3단의 ‘百官; 十道’, ‘五兵; 七政’, 제4단의 ‘一時; 萬里’, 방위로 대를 이룬 제5단의 ‘南充; 東陲’ 등은 동류대(同類對)에 해당한다. 옷으로 대를 이룬 제5단의 ‘緇衣’와 ‘錦被’는 옷이라는 속성은 같지만, 전고가 있는 ‘緇衣’를 활용하여¹⁹⁾ 서로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더욱 공교하다. 제4단의 ‘於儒則筆慙五色; 在武則劍敵一夫’는 반대되는 속성으로 대를 맞춘 이류대(異類對)인데, ‘筆’과 ‘劍’, ‘慙’과 ‘敵’, ‘五色’과 ‘一夫’까지 반대되는 속성으로 정연하게 대를 맞춘 동시에 강염(江淹)과 항우(項羽) 고사까지 활용함으로써 그 의미를 심화시키고 있다.

전고 활용의 경우, 제2단 ‘寵榮極而何力負山; 戰灼深而自容無地’에서는 ‘負山’에 『장자(莊子)』에서 “모기에게 태산을 짊어지게 하는 격이다.”²⁰⁾라고

및 하직 인사를 투식적으로 작성해야 했기 때문에 평측을 강구하기 어려웠다.

19) 緇衣는 『詩經』 「鄭風」의 편명이다. 鄭나라 桓公과 武公이 周나라의 司徒가 되어 직무를 충실히 잘 수행하였으므로, 주나라 백성들이 그들의 덕을 찬양하여 부른 노래이다.

20) 『莊子』, <應帝王>, “其於治天下也, 猶涉海鑿河, 而使蚊負山也.”

하여 인간의 힘의 한계를 비유한 전고를 활용하여, 황제의 은혜를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겸사(謙辭)의 의미를 표현하였다. 또한 글자를 따로 떼어서 살펴보면, ‘山’과 ‘地’라는 글자가 대를 이루면서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차대(借對)와 적명대(的名對)에 해당한다. 제7단의 ‘臣既當下瀨長師; 佇欲中流設誓’에서는 ‘中流設誓’에 조적(祖逖)의 고사를 활용하여²¹⁾ 난리를 평정하여 중원(中原)을 회복하겠다는 다짐을 표현하는 동시에, ‘下瀨’와 ‘中流’에 대장을 맞추어 차대(借對)와 동류대(同類對)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최치원은 표면적으로 평측과 대장을 엄격하게 지키면서도 그와 관련된 고사를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그 글자 이면에 담긴 의미를 표현하여 자신의 의사를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대장을 이루는 두 구절 모두에 무리하게 전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전고만 해당 구에 활용함으로써 정련(精練)의 미를 배가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작(自作)에 해당하는 <태위에게 처음 올린 글[初投獻太尉啓]>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 | |
|------------|----------------------------|
| [1] 某啓 | 모(某)는 아뢰입니다. |
| 伏以 嶽之高與海之深 | 삼가 생각건대, 높은 산과 깊은 바다에 대해서 |
| 物所歸而人所仰 | 만물이 귀의하고 사람들이 우러르는 것은 |
| 迥拔千仞 | 멀리 천 길 높이 솟구치고 |
| 平吞百川 | 온갖 물줄기를 고루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
| 其如 嶽磬擎天 | 가령 하늘을 떠받친 산봉우리나 |
| 波瀾蕪日 | 태양이 잠긴 물결과 같은 것은 |
| 豁四方之眼 | 사방(四方)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하고 |
| 醒萬族之魂 | 만족(萬族)의 영혼을 깨워 일으키니, |
| 是宇內之所歌謠 | 이는 우주에서 줄곧 노래해 온 것으로, |
| 匪毫端之能贊詠 | 지금 붓 끝으로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2] 伏惟司徒相公 獨抱神略 삼가 생각건대, 사도(司徒) 상공(相公)께서는

21) 『晉書』 권62 <祖逖列傳>에 보이는 고사이다. 東晉의 祖逖이 중원 회복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서 招募한 군대를 이끌고 長江을 건너갈 적에, 강 한복판에서 비분강개한 심정으로 노를 들어 뱃전을 치며 “내가 중원을 평정하지 않고서는 이 강을 다시 건너지 않겠다고 강을 두고서 맹세한다.”라고 다짐하였다.

홀로 귀신같은 전략을 발휘하여
 一匡聖朝 일거에 성스러운 조정을 바로잡음으로써,
 譽洽於良哉康哉 양재강재(良哉康哉)의 칭예를 흠족하게 받고
 名標於可久可大 가구가대(可久可大)의 명성을 떨치고 계십니다.
 龔黃德政 則郡民有遺愛之碑 공황(龔黃)의 덕정(德政)을 행함에
 고을 백성들은 유애(遺愛)의 비(碑)를 세웠고,
 韓白功勳 則國史有直書之筆 한백(韓白)의 공훈을 이름에
 나라의 사관(史官)은 직서(直書)의 붓을 들었습니다.

[3] 況某 劣同窺豹 하물며 모(某)로 말하면,
 대롱 구멍으로 표범 무늬를 엿보는 것처럼 졸렬하고,
 淺比傾螺 소라 껍데기로 바다 깊이를 재는 것처럼 천박하니,
 難將篆刻之詞 전각(篆刻)의 문사(文詞)를 가지고서
 輒頌陶鎔之業 도용(陶鎔)의 위업(偉業)을 칭송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4] 但以 間生賢哲 年當五百之期 다만 지금 현철(賢哲)이 세상에
 출현하는 5백 년의 기한이라
 廣集英豪 客滿三千之數 널리 영웅호걸을 모으자 3천 명의
 문객(門客)이 가득 찼습니다.
 既納之似水 이미 받아들이는 것이 물과 같아서
 則來者如雲 모여드는 자들이 구름과 같으니,
 斯乃司徒相公 鏡於心而寬兮綽兮 이는 바로 사도(司徒) 상공(相公)께서
 마음을 거울과 같이 하여 너그럽고 넉넉
 하시며,
 秤於事而無偏無黨 일을 저울처럼 처리하여
 편벽됨과 편당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網羅雋彥 준걸(俊傑)을 그물 안에 들게 하시고,
 籠罩驍雄 효웅(驍雄)을 새장 안에 거두시므로,
 於儒則沈謝呈才 유자(儒者)로는
 심사(沈謝)와 같은 이들이 재주를 바치고,
 於武則關張效力 무장(武將)으로는
 관장(關張)과 같은 이들이 온 힘을 다합니다.

雖形骸則鄙
 年齒未衰
 自十二則別鷄林
 至二十得遷鶯谷
 方接青襟之侶
 旋從黃綬之官

하지만 형해(形骸)는 비루해도
 연치(年齒)만은 아직 쇠하지 않았습니
 다.
 12세에 계림(鷄林)을 떠나
 20세에 이르러 앵곡(鶯谷)에서 자리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청금(靑襟)의 벗들과 어울리다가
 이내 황수(黃綬)의 벼슬에 종사하였습니다.

[8] 既忝登龍
 敢言絆驥
 今者乍離一尉
 欲應三篇
 更願進脩
 且謀退縮
 獨依林藪
 再閱丘墳
 課日攻詩 虞訥之詆訶無避
 積年著賦 陸機之哂笑何慙

이미 용문(龍門)에 올랐으니,
 어찌 감히 반기(絆驥)라고야 말하겠습니
 까마는,
 지금 잠시 하나의 현위(縣尉)를 떠나서
 삼편(三篇)의 시문(試文)에 응시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진수(進脩)를 원하고
 퇴축(退縮)을 피하여,
 홀로 숲 속에 몸을 의탁한 채
 구분(丘墳)을 열람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시를 지으며
 우눌(虞訥)의 혹평도 마다하지 않았으니,
 여러 해 동안 부(賦)를 지으며
 육기(陸機)의 비웃음이 뭐 부끄럽겠습니까.

[9] 俟其敦閱致功
 琢磨成器
 求魚道在垂竿而不掛曲鈎
 射鵠心專撚箬而冀銜後鏃
 端操勁節

그리하여 시서(詩書)에 집중하여 공을
 성취하고,
 갈고닦아서 그릇을 이룰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은 그 방법이 낚싯대에
 있으나 꼬부라진 갈고리는 매달지 않으며,
 정곡을 맞추려면 마음을 전일히 하여 시
 위를 당겨야 하나 다음 화살이 벌써 활줄
 에 매어 있기를 바라는 법입니다.
 이처럼 지조를 바르게 하고 절조를 단속

하면서,

佇望良時

좋은 시절이 찾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0] 竊見萬物投誠

삼가 살펴보건대, 만물이 정성을 바치고
천하가 귀의하는 이때에

八紘嚮德

不調相公賓閣

상공(相公)의 객관(客館)을 찾아가지 않고

不遊相公德門者

상공의 덕문(德門)에서 노닐지 않는다면,

詞人之所懷慙

이는 문인(文人)이 부끄럽게 여길 일이고,
못사람의 비방을 받을 일입니다.

群議之所發諍

그래서 모가 감히 간담(肝膽)을 토로하며
붓을 뽑아 들고서 글월을 울리게 되었고,

某固敢隳肝瀝膽 進牘抽毫

엄한 꾸지람을 피하지 않고서

不避嚴誅 輒申素懇

문득 본심(本心)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11] 謹錄所業雜篇章五軸兼陳情七言長句詩一百篇, 齋沐上獻 冒犯尊威, 不任戰懼之至. 謹啓.

그동안 지은 잡편(雜篇)의 문장 5축(軸)과 진정(陳情)한 칠언 장구시(七言章句詩) 1백 편을 삼가 기록하여, 목욕재계(沐浴齋戒)하고 올리는 바입니다. 존위(尊威)를 외람되게 범하여 지극히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아뢰니다.

최치원은 876년부터 879년까지 3년 동안 울수 현위(溇水縣尉)로 있었다. 현위는 종9품의 말직이었으므로 자신의 포부를 펴기 위해서는 더 높은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바 그는 현위를 그만두고 박학공사과(博學宏辭科)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황소(黃巢)의 난으로 사정이 어렵게 되자, 당시 회남절도사(淮南節度使) 및 충염철전운사(充鹽鐵轉運使)로 기세를 떨치고 있던 고병의 막하로 들어가고자 하였다.²²⁾ 이에 당시의 관행에 따라 잡편의 문장 5축(軸)과 진정(陳情)한 칠언 장구시 1백 편 등 자신이 지은 글을

22) 당 후기에 절도사나 관찰사 등과 같은 使職들은 부임과 동시에 幕僚를 辟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이들 藩鎮의 벽소는 吏部의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당 후반 기 관료들간의 사적인 결속을 조장한 가장 전형적인 천거제도이며, 당시 진사과 급제자의 약 2/3 이상이 번진으로 벽소된 경력이 있을 정도로 入仕와 승진의 실질적인 사다리 역할을 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당말로 갈수록 두드러졌다. 남동신, 『『계원필경집』의 문화사적 이해』, 『진단학보』 제112호, 진단학회, 2011, 191~192면 참조.

고병에게 올리며, 이 글을 함께 올려 자신을 등용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다.

이 글은 간알이라는 목적을 표현하되 전아한 형식을 통해 품위를 잃지 않는 글쓰기를 보여주고 있어 주목되는 글이므로, 그 내용 전개 방식이 형식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주목하여 살펴보겠다.

이 글은 크게 상대방인 고병을 송찬하는 부분과 자신을 상황을 서술하는 부분으로 구분된다. 제1단은 서두에 해당하는데, 송찬 대상을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글의 첫머리부터 송찬 대상을 바로 언급하면 시상 전개가 단조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한 것이다. 그 대신 ‘산악의 높음[巖之高]’과 ‘바다의 깊음[海之深]’에 대해 서술함으로써 송찬 대상의 격을 높이고, 장엄한 필치를 조성하였다.

제2단에서는 송찬 대상자인 고병을 등장시켰다. 『서경』의 “임금님이 밝으시면 신하들도 훌륭하여 모든 일이 안정될 것입니다.[元首明哉, 股肱良哉, 庶事康哉.]”라는 구절에서 ‘良哉康哉’를, 『주역』의 “오래 갈 수 있는 것은 현인의 덕이요, 광대해질 수 있는 것은 현인의 업이다.[可久則賢人之德, 可大則賢人之業.]”라는 구절에서 ‘可大可大’를 따와서 대를 맞추었다. 이러한 전고를 통해 글자 이면의 의미를 담는 한편 ‘哉’, ‘可’와 같은 허자를 중복해서 사용하면서도 ‘□哉□哉’, ‘可□可□’와 같이 글자의 위치를 다르게 놓음으로써 변화감을 살리고 평측의 규칙도 준수하였다. 또한 지방 장관으로서 선정을 펼쳤던 공수(龔遂)와 황패(黃霸), 명장의 대명사인 한신(韓信)과 백기(白起)에 비견함으로써 유(儒)·무(武) 양 방면으로 송찬하였다.

제3단에서는 ‘대롱 구멍으로 표범 무늬를 엿보는 것[窺豹]’, ‘소라 껍데기로 바다 깊이를 재는 것[傾螺]’과 같은 행위로 자신의 상황을 서술하였다. 또한 자신은 미사여구로 문장을 쓰는 ‘篆刻’에, 고병은 인재를 육성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陶鑄’에 견주었다. 고병을 한껏 높이고 자신은 한껏 낮춤으로써 상대방을 더욱 높이는 효과를 자아낸 것이다.

제4단에서는 『맹자』에서 말한 성현이 태어나는 주기 5백 년과 『사기』에 보이는 문객 3천 명의 고사를 활용하여 ‘賢哲’과 ‘英豪’, ‘年’과 ‘客’, ‘當’과 ‘滿’, ‘五百之期’와 ‘三千之數’로 정밀한 대를 맞추었다. 그 의미에 있어서는, 표면적으로 고병을 요순(堯舜)·탕왕(湯王)·문왕(文王)·공자(孔子) 뒤를

있는 성현이자 널리 인재를 구했던 사공자(四公子)에 비견하여 높이는 한편, 이면에서는 시대의 도래와 인재 초치의 문풍에서 자신을 등용해야 할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다. 제5단에서는 ‘春夏秋冬’과 ‘東西南北’으로 대를 맞춤으로써 이러한 인재 등용의 효과를 시간적·공간적으로 확장시켰다.

제6단에서는 이러한 일반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시의 현실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설교하였다. 국제적인 당나라의 문풍 속에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유학하는 이 때에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말고 함께 등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최치원은 이러한 직접적인 단어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일월이 비추는 곳에, 지금 풍뢰의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但日月照臨之所; 是風雷變化之時]’라는 표현을 통해 중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그렇다면 이보의 당중에도 타향의 제자들이 있는데, 맹상의 문하에 어찌 먼 지방의 사람이 없겠습니까.[然則尼父堂中 亦有他鄉之子; 孟嘗門下 寧無遠地之人]’라는 표현을 통해 이전에도 타향의 사람을 받아들인 전례가 있었으므로, 현재 타향의 사람을 등용하는 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음을 표현하였다.

제7~9단에서는 자신에 대한 서술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제7단에서는 ‘출신은 비천하고 성품은 어리석으며, 재질도 볼 것이 없고 학식도 넉넉하지 못합니다.[身也賤性也愚; 才不雄學不贍]’라고 하여, 身·性·愚·才 네 가지 측면에서 자신을 모두 낮추고 있다. 그러나 그 형식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뭇 다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대목이 구중대(句中對)로서 아주 정밀한 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구중대는 대장을 이루는 두 구절의 각 구절 안에서 다시 대장의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대칭을 극도로 추구한 수준 높은 기교이다. 크게 보면 ‘身也賤性也愚’와 ‘才不雄學不贍’이 대를 이루면서, 또 각 구절 안에서 ‘身也賤’과 ‘性也愚’가, ‘才不雄’과 ‘學不贍’이 또 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 구절뿐만 아니라 제1단의 ‘伏以嶽之高與海之深; 物所歸而人所仰’에서도 구중대를 사용하였다. 또한 제9단의 ‘求魚道在垂竿而不掛曲鉤; 射鵠心專撚筈而糞銜後鏃’에서는 무려 11·11자구의 대칭 형태가 보이는데, 그 평측의 규칙을 엄수함은 물론 그 속에 태공망(太公望)의 고사와 『열자(列子)』의 구절까지 인용하여²³⁾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

23) 太公望 呂尚이 꼬부라진 갈고리를 매달지 않고 곧은 갈고리로 낚시를 하면서 미끼로 유인

는 의미 역시 구체화 하였다. 앞에서 분석했던 글 <태위의 직책에 올려 준 것에 대해 사례한 표문[謝加太尉表]>에서는 구중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인 양상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최치원은 고병을 상대로 그 내용에서 자신을 낮추고 있으나 기실 그 형식을 통해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한껏 내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고 활용을 통해서도 최치원의 은근한 자부심을 확인할 수 있다. 제8단의 ‘날마다 시를 지으며 우늘의 혹평도 마다하지 않았으니, 여러 해 동안 부를 지으며 육기의 비웃음이 뭐 부끄럽겠습니까.[課日攻詩 虞訥之語訶无避; 積年著賦 陸機之哂笑何慙]’라는 대목에서 우늘(虞訥)과 육기(陸機)의 고사를 활용하고 있다. 글자 그대로의 의미만 보았을 때 이는 ‘혹평[語訶]’과 ‘비웃음[哂笑]’에 지나지 않지만, 『남사(南史)』와 『진서(晉書)』에 보이는 고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반대의 의미를 추출할 수 있다. 우늘이 혹평했던 대상은 남조(南朝) 양(梁)의 장술(張率)인데, 그는 우늘의 혹평을 받은 뒤에 그동안 지은 시 2천여 수를 모두 불살라버렸다. 이후 자신이 다시 지은 시를 당대 최고의 문장가였던 심약(沈約)의 작품이라 하면서 보여주자, 그때는 우늘이 극구 칭찬하였다고 한다.²⁴⁾ 육기가 비웃었던 대상은 서진(西晉)의 좌사(左思)이다. 육기가 <삼도부(三都賦)>를 지으려 할 때, 좌사(左思)가 먼저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박장대소하며 “요즈음 어떤 촌놈이 <삼도부>를 짓는다는데, 완성되면 그 종이로 술독이나 덮어야겠구나.”라고 조롱하였다. 그러나 뒤에 좌사의 <삼도부>를 보고는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다고 극구 칭찬하였다고 한다.²⁵⁾ 즉, 우늘의 혹평과 육기의 비웃음은 훗날 칭찬과 감탄으로 바뀌게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최치원은 전고를 통해 자신을 장술과 좌사에 비견하면서 자신의 문장에 대한 자부심을 은근히 드러내었다.

하지도 않은 채 물의 표면에서 석 자 정도나 위로 떼어놓고는 “내 말을 안 듣는 물고기만 올라와서 물어라.”라고 했다는 말이 『武王伐紂平話』 하권에 나온다.; 『列子』 〈仲尼〉, “善射者, 能令後鏃中前括, 發發相及, 矢矢相屬. 前矢造準而無絕落, 後矢之括猶銜弦, 視之若一焉.”

24) 『南史』 권31 〈張裕列傳·張率〉, “至年十六, 向作二千餘首. 有虞訥者見而詆之, 率乃一旦焚毀, 更爲詩示焉, 托云沈約. 訥便句句嗟稱, 無字不善. 率曰: ‘此吾作也.’ 訥慚而退.”

25) 『晉書』 권92 〈文苑列傳·左思〉, “初, 陸機入洛, 欲爲此賦, 聞思作之, 撫掌而笑, 與弟雲書曰: ‘此間有倫父, 欲作『三都賦』, 須其成, 當以覆酒甕耳.’ 及思賦出, 機絕嘆伏, 以爲不能加也, 遂輟筆焉.”

이상 두 편의 글을 통해 최치원의 재당기 변려문이 대장·평측·용전 등 모든 측면에서 변려문의 정격에 부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상에 있어서도 그 성취가 돋보였는데, 최치원은 정해진 형식을 준수하면서도 자신과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자신의 문제를 유감없이 선보였다.

III. 귀국후(歸國後) 산문

최치원의 귀국 후 산문은 『고운집』과 『고운속집』에 보인다. 작품을 개관 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최치원의 귀국후(歸國後) 산문 개관

| 문체 | 편수 | 출전 |
|----|------------------|-------------|
| 表 | 7 ²⁶⁾ | 『고운집』 권1 |
| 狀 | 6 | 『고운집』 권1 |
| 記 | 3 | 『고운집』 권1 |
| | 1 | 『고운속집』 |
| 碑銘 | 4 | 『고운집』 권2·권3 |
| 贊 | 2 ²⁷⁾ | 『고운집』 권3 |
| | 6 | 『고운속집』 |
| 序 | 1 | 『고운속집』 |
| 願文 | 7 | 『고운속집』 |
| 傳 | 1 | 『고운속집』 |
| 합계 | | 38편 |

재당 시기 산문은 대부분이 주의류(奏議類)인 반면, 귀국 후의 산문에는

26) 『고운집』 권1의 <百濟遣使朝北魏表>는 百濟왕의 代作으로, 최치원의 작품이 아니라는 점이 선행연구에서 이미 밝혀졌으므로 따로 편수로 계산하지 않았다.
 27) 『고운집』 권3의 <華嚴佛國寺繡釋迦如來像幡贊并序>는 『고운속집』의 <王妃金氏爲考繡釋迦如來像幡讚>과 <大華嚴宗佛國寺阿彌陀佛像讚> 두 편을 잘못 抄錄·混合한 것이라고 밝혀졌으므로, <華嚴佛國寺繡釋迦如來像幡贊并序>는 따로 편수로 계산하지 않았다.

주의류뿐만 아니라 잡기류(雜記類)·비지류(碑志類)·송찬류(頌讚類)·서발류(序跋類)·전장류(傳狀類) 및 불교의 특수한 형식의 글인 원문(願文) 등 재당 시기 산문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문체 또한 실려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체인 주의류의 경우와, 새로이 나타나는 문체인 잡기류·비지류의 경우로 나누어 귀국 전후로 어떠한 차이를 보여주는지 비교해보기로 한다.

1. 주의류(奏議類)의 경우

주의류의 경우, <신라하정표(新羅賀正表)>²⁸⁾를 대표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²⁹⁾ 이 글은 귀국 후 신라 왕을 대신하여 당나라 회종에게 올릴 글을 작성한 것이다.

[1] 臣某言。元正告始，景福惟新。伏惟皇帝陛下膺乾納祐，與天同休，臣某誠歡誠喜，頓首頓首。

신(臣) 모(某)는 아웁니다. 정월 초하루가 밝아 오면서 큰 복이 새롭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황제 폐하께서도 하늘의 보우(保佑)를 받고 한없는 복을 누리실 것이기에 신 모가 참으로 환희하면서 머리를 조아려 경하하는 바입니다.

| | |
|-----------|---------------------------|
| 臣蕃伏自 立國承家 | 신의 번방(蕃邦)은 국가를 세우고 |
| 開疆拓土 | 강토를 개척한 때로부터 |
| 皆乃仰攀天蔭 | 언제나 천조(天朝)의 비호를 받아야만 |
| 方能俯靜海隅 | 바다 한구석에서 안정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
| 遂從先祖而來 | 그래서 마침내 선조(先祖) 이래로 |
| 每慶新正之德 | 신정(新正)을 맞을 때마다 경하드렸으니 |
| 年無闕禮 | 한 해도 거른 적이 없었고 |
| 史不虧書 | 역사의 기록에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

28) 최치원, 『고운집』 권1; 『동문선』 권31.

29) 지면 관계상 대표적으로 이 작품만 분석하였지만, 이때 나타나는 문체의 특성은 비단 이 작품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귀국 후 주의류 산문에 전반적으로 나타난다.

‘동(東)’에 함축된 상징과 의미와 부여하고 그것을 글로 표현한 최초의 인물이다. 이때 ‘동(東)’은 중국을 ‘서국(西國)’이라 표현하는 것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신라에 대한 주체성의 발로를 보여준다.³⁰⁾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사산비명(四山碑銘)이나 <선안주원벽기(善安住院壁記)> 등의 자료에 국한하여 최치원의 동인 의식(東人意識)을 논의하였으나, 중국에 보내는 표문(表文)에서도 신라에 대한 주체성과 자부심을 나타내는 표현이 확인되어 흥미롭다.

제3단에서 ‘제잠(鯤岑)’의 ‘제(鯤)’는 고대에 동해 바다 가운데에 있던 종족의 이름으로, 『한서(漢書)』에 그 용례가 보인다.³¹⁾ 최치원은 ‘제(鯤)’에 신라의 ‘동(東)’ 이미지를 최초로 덧붙여 ‘제학(鯤壑)’·‘제명(鯤溟)’ 등의 표현을 거듭 사용하였다.³²⁾ 박인량(朴寅亮), 이제현(李齊賢), 이색(李穡), 권근(權近) 등이 이러한 표현을 이어 사용하며 후대로 전해졌고,³³⁾ 이후 이익(李瀾)은 『성호사설(星湖僿說)』에서 <제잠(鯤岑)>이라는 글을 통해 ‘제잠’이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용어임을 논설하기도 하였다.³⁴⁾

제3단에서 ‘신학(蜃壑)’의 ‘신(蜃)’은 바닷속에서 뜨거운 숨을 내뿜어 누각[樓]과 같은 형상을 만들어 낸다는 전설상의 큰 조개를 말한다. ‘신기(蜃氣)’는 『사기(史記)』에서부터 그 용례가 확인되는데³⁵⁾ ‘신기루’와 같은 의미로, 빛의 굴절에 의해 해수면이나 사막 등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지칭한다. 옛사람들은 큰 조개[蜃]에 의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였다.

30) 최치원의 東人意識에 대해서는 최영성, 「崔致遠 사상에서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 東人意識과 同文意識을 중심으로」, 『동양문화연구』 제4집,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09, 94~102면 참조.

31) 『漢書』 권28, <地理志>, “會稽海外有東鯤人, 分爲二十餘國, 以歲時來獻獸云.”

32) <祭嶼山神文>(『계원필경집』 권20)에 ‘鯤壑’, <新羅王與唐江西高大夫【湘】狀>(『고운집』 권1)에 ‘鯤溟’이라는 표현이 보인다.

33) 朴寅亮, <上大遼皇帝告奏表>(『東文選』 권39); 李齊賢, <賀牋>(『益齋亂稿』 권8), <有元高麗國清平山文殊寺施藏經碑>(『익재난고』 권7); 李穡의 <賀平蜀表>(『牧隱文藁』 권11), <皇太子千秋牋>(『목은문고』 권11); 權近, <選女>(『陽村集』 권10) 등에 ‘鯤岑’이라는 표현이 보인다.

34) 李瀾, 『星湖僿說』 권2 天地門, <鯤岑>.

35) 『史記』 권27, <天官書>, “北夷之氣如群畜穹閭, 南夷之氣類舟船幡旗, 大水處, 敗軍場, 破國之虛, 下有積錢, 金寶之上, 皆有氣, 不可不察. 海旁蜃氣象樓臺, 廣野氣成宮闕然, 雲氣各象其山川人民所聚積.” 『漢書』 <天文志>에도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다.

당나라 시인들이 신라로 가는 사람들을 전송한 시를 보면 ‘신(蜃)’을 종종 시어로 사용하였다. 예컨대 경위(耿濤)의 시에서 “유유히 용절(龍節) 실은 배 떠나고, 아득히 신루(蜃樓)가 새로 생겼네.”³⁶라 하고, 장효표(章孝標)의 시에서 “교실(蛟室)에서 잠을 자니 음화(陰火)가 싸늘하고, 신루(蜃樓)에 배를 대니 새벽 노을 짙구나.”³⁷라 하며, 장빈(張蠙)의 시에서 “물결 먹는 고기들의 소리 멀고, 바람맞는 조개[蜃]의 기운 충졌네.”³⁸라 한 것이 그러하다.³⁹ 그런데 왕유(王維, 701~761)가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서감(祕書監) 조형(晁衡)을 전송하며 쓴 시의 서문에서도 “황작(黃雀)의 바람이 땅을 움직이고, 검은 조개[蜃] 기운이 구름을 만드네.”⁴⁰라 하여 역시 ‘신(蜃)’을 시어로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신루(蜃樓)’나 ‘신기(蜃氣)’는 바닷길 여정에서 볼 수 있는 자연현상일 뿐이지 ‘신(蜃)’에 ‘신라’라는 특수한 의미를 내포한 것은 아니었다.

한편 큰 조개[蜃]에 의해 신기루 현상이 나타난다고 믿었던 만큼, 신기루 현상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현상과는 달리 ‘신비로움’을 덧입은 현상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이는 해양 신선 문화와 연관되며 중국과 신라 사이의 바다를 ‘선계’로 이해할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다.⁴¹ 최치원은 이러한 가능성을 적극 활용하며, ‘신학(蜃壑)’이라는 용어를 ‘신라’의 의미로 사용하여 그 전례를 만들어놓았다. 이는 앞서 살펴본 ‘제잠(鯤岑)’에 비해, ‘신라’와 곧바로 연결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차례 유추를 거치며 어렵게 조탁해 낸 용어이다. 그 때문인지 최치원 자신도 이 글 외에 다시 사용하지 않았으며, 후인들도 이 표현을 따라 쓰지 않았다. ‘신기루’ 자체가 위

36) 耿濤, 『全唐詩』 권269, <送歸中丞使新羅>, “遠國通王化, 儒林得使臣。六君成典冊, 萬里奉絲綸。雲水連孤棹, 恩私在一身。悠悠龍節去, 渺渺蜃樓新。望裏行還暮, 波中歲又春。昏明看日禦, 靈怪問舟人。城邑分華夏, 衣裳擬綺紳。他時禮命畢, 歸路勿迷津。”(볼드체 - 필자. 이하 동일.)

37) 章孝標, 『全唐詩』 권506, <送金可紀歸新羅>, “登唐科第語唐音, 望日初生憶故林。蛟室夜眠陰火冷, 蜃樓朝泊曉霞深。風高一葉飛魚背, 潮淨三山出海心。想把文章合夷樂, 蟠桃花裏醉人參。”

38) 張蠙, 『全唐詩』 권702, <送友人及第歸>, “家林滄海東, 未曉日先紅。作貢諸蕃別, 登科幾國同。遠聲魚呷浪, 層氣蜃迎風。鄉俗稀攀桂, 爭來問月宮。”

39) 이상 세 편의 시는 韓致彞, 『海東繹史』 권50 藝文志 9, <中國詩一>에도 모두 수록되어 있다. 번역은 정선용, 『국역 해동역사』, 민족문화추진회, 1998~2003을 참고하였다.

40) 王維, 『王右丞集箋注』 권3, <送秘書晁監還日本國並序>, “黃雀之風動地, 黑蜃之氣成雲。”

41) 정용수, 「동아시아 해양神仙문화의 성립과정과 그 경로」, 『동양한문학연구』 제31집, 동양한문학회, 2010; 진민희, 「조선조 「蜃樓記」 작품군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제64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17.

낙 내포하는 상징성이 많아서 단일한 의미로 이해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비록 그러하나, ‘제잠(鯢岑)’과 대장을 이루는 표현으로서 ‘신학(蜃壑)’이라는 표현을 새로이 고안하여 신라에 신비로운 이미지를 덧씌운 것은 아주 탁월한 표현법이라 하겠다.

제4단의 ‘천계가 새벽을 알릴 때에 머나먼 구석에서 선창한다.[天鷄報曉能首唱於遐陬]’라는 대목에서 ‘머나먼 구석[遐陬]’은 얼핏 보면 자조적인 표현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 신라에 대한 자부심을 내포하고 있다. ‘천계(天鷄)’와 관련된 고사는 『술이기(述異記)』에 보인다. 동남쪽에 도도산(桃都山)이 있고 그 산 위에는 가지와 가지 사이의 거리가 3000리나 되는 도도(桃都)라는 큰 나무가 있는데, 아침에 해가 뜨면서 이 나무를 비추면 천계(天雞)가 울고 그 소리를 따라서 온 천하의 닭들이 운다는 것이다.⁴²⁾ 이 고사를 통해 ‘머나먼 구석[遐陬]’은 천계가 먼저 우는 곳으로서 ‘도도(桃都)’와 그 의미가 동일시된다.⁴³⁾ 도도는 가지와 가지 사이의 거리가 3000리나 될 정도로 그 규모가 거대할 뿐만 아니라 온 천하의 닭을 선도하는 천계가 사는 곳, 아침에 해가 가장 먼저 비추는 곳이라는 의미가 겹쳐져 있다. 즉, 표면적으로 신라를 낮추어 겸손함을 드러내면서도 그 이면에 신라에 대한 무궁한 자부심을 드러낸 것이다.

요컨대, 이 글은 재당 시기 주의류 산문과 형식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변려문의 형식을 준수하면서도 그 속에 신라를 상징하는 독창적인 용어를 고안해냄으로써 신라에 대한 자부심을 표출했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보인다 하겠다.

2. 잡기류(雜記類) 및 비지류(碑誌類)의 경우

주의류 산문의 경우 수신자가 당나라 황제였으므로 엄정한 변려문 형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그러나 잡기류 및 비지류 산문의 경우 신라 왕

42) 任昉, 『述異記』, “東南有桃都山, 上有大樹, 名曰桃都, 枝相去三千里, 上有天雞. 日初出, 照此木, 天雞則鳴, 天下雞皆隨之鳴.”

43) <遺宿衛學生首領等入朝狀>(『고운집』 권1), <無染和尚碑銘>(『고운집』 권2), <大嵩福寺碑銘>(『고운집』 권3)에서도 같은 고사를 활용하여 ‘桃野(桃都의 들판)’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하였다.

의 요청에 의해 지어졌더라도 굳이 엄정한 변려문 문체로 지을 필요가 없었으며, 왕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더더욱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다. 이 때문에 잡기류 및 비지류 산문에서는 주의류 산문과 대조적으로, 변려문의 엄격한 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신라가야산해인사결계랑기(新羅伽倻山海印寺結界場記)>⁴⁴⁾를 살펴보자. 이 글은 898년에 작성된 것으로, 해인사 중창의 내력을 담고 있다. 해인사가 지방 도적들의 공격을 받자, 마군(磨軍)의 침입을 경계하고 지율(持律)에 힘쓰기 위해 결계(結界)를 한 것이다.⁴⁵⁾ 이 글은 대체적으로 변려문 격식에 맞지만, 서두 부분에 그 격식에 맞지 않는 부분이 보인다.

[1] 嘗聞大一山釋氏援金言而警沙界云 일찍이 태일산(太一山)의 석씨(釋氏)가 금언을 인용하여 사계(沙界)에 경계한 말을 듣건대,

戒如大地

生成住持

蓋發心業之謂也

“계(戒)는 대지(大地)와 같은 것이니

생(生)하고 성(成)하며 주(住)하고

지(持)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심업(心業)을 발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2] 故大經曰 世及出世諸善根

皆依最勝尸羅地

그러므로 대경(大經)에 이르기를,

“세간 및 출세간의 선근(善根)들은

모두 가장 수승한 시라(尸羅)의 땅에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였던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두 가지 문헌을 인용하였다. 첫 번째는 당나라의 율승(律僧) 도선(道宣, 596~667)의 『광홍명집(廣弘明集)』 <계공편서(誠功篇序)>에 보이는 “계(戒)는 대지와 같은 것이니, 생(生)하고 성(成)하며 주(住)하고 지(持)해야 한다.”⁴⁶⁾라는 대목이다. 이는 『유가사지론(瑜伽師地

44) 최치원, 『고운집』 권1, <新羅伽倻山海印寺結界場記>; 『동문선』 권64.

45) 해인사의 중창 과정에 대해서는 최원식, 『新羅 下代の 海印寺와 華嚴宗』, 『한국사연구』 제 49집, 한국사연구회, 1985, 9~17면 참조.

46) 도宣, 『廣弘明集』 권27, <誠功篇序>(T.52, 303c), “經不云乎? ‘戒如大地, 生成住持.’ 出有心

論)』에서 말한 지(地)의 네 가지 뜻을 말한 것으로, 지(地)는 범어 bhūmi의 번역으로서 ‘생하고 성하며 주하고 지한다[生成住持]’의 의미를 지닌다. 도선은 계율종 남산파(戒律宗南山派)의 개조(開祖)로, 장안(長安) 남쪽에 있는 종남산(終南山)에서 살았기 때문에 남산율사(南山律師)라고도 불린다. 태일산(太一山)은 종남산의 또다른 명칭이다. 두 번째는 『화엄경』 <보현행원품(普賢行願品)>에 보이는 “세간 및 출세간의 선근(善根)들은 모두 가장 수승한 시라(尸羅)의 땅에 의지해야 한다.”⁴⁷⁾라는 대목이다. ‘시라(尸羅)’는 범어 śīla의 번역으로서 ‘계(戒)’, 곧 불교에 귀의한 자가 지켜야 할 규칙을 의미한다. ‘시라의 땅[尸羅地]’이란 계행(戒行)이 청정한 땅이란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범어에서 소리나는 대로 읽어 ‘신라’를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신라에 불국토사상(佛國土思想)⁴⁸⁾이 만연화 됨에 따라 후자의 의미로 많이 이해되었고, 최치원 또한 후자의 의미를 겸하여 썼다.⁴⁹⁾

여기에서 주목되는 현상은 해당 문헌의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변려문은 사륙과 대장의 형식 및 평측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전고를 취하되 글자 수나 평측에 맞게 형식을 가다듬어 두 세 글자에 압축적으로 그 전고의 의미를 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에서는 해당 문헌의 원문에 전혀 윤색을 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 때문에 글자 수는 맞지만, ‘戒如大地’는 1·3식인 반면 ‘生成住持’는 2·2식이고, ‘世及出世諸善根’은 4·3식인 반면 ‘皆依最勝尸羅地’는

發, 是曰生也; 聖道良資, 是曰成也; 法延六萬, 是曰住也; 保任三業, 是曰持也.”

47) 般若 譯, 『大方廣佛華嚴經』 권17, <普賢行願品>(T.10, 737a~b), “爾時, 大天即爲善財種種稱讚戒波羅蜜, 而說偈言: ‘如諸衆生及草木, 一切生長成依地, 世及出世諸善根, 皆依最勝尸羅地. (…)’” 해당 구절은 善財童子가 30번째로 만난 선지식 大天神이 설법을 마친 후 읊은 계송에 나오는 구절로서, 60권본이나 80권본 『화엄경』에는 보이지 않고, 40권본 『화엄경』에만 보인다. 기존 연구에서 40권본 『화엄경』은 권1~권39까지는 60권본 『화엄경』의 권44~권60과 80권본 『화엄경』의 권60~권80의 내용을 그대로 수록한 것이라 차이가 없지만, 권40에는 普賢菩薩이 十大願을 설하고 62偈頌을 읊은 내용이 새로이 추가되어 있다고 하였다(문선희, 『高麗 14세기 『40華嚴經』 寫經變相圖 연구』, 『불교미술사학』 제5집, 불교미술사학회, 2007, 430~434면). 그러나 40권본 『화엄경』 권1~권39에서 선지식의 설법 후 이어지는 계송 또한 60권본이나 80권본 『화엄경』에 보이지 않는 내용이다.

48) 신라의 佛國土思想 전개양상에 대해서는 신동하, 「신라 불국토사상의 전개양상과 역사적 의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참조.

49) 최치원, 『고운집』 권1, <新羅伽伽山海印寺結界場記>, “然則地名相協, 天語可尋, 國號尸羅, 實波羅提興法之處, 山稱伽伽, 同釋迦文成道之所.”

2·5식이라 엄밀한 대장을 이루지 못한다. 또한 ‘戒如大地, 生成住持.’의 아래에 ‘이는 심업(心業)을 발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蓋發心業之謂也]’라는 독립구(獨立句)를 둠으로써 두 구끼리 상호대칭을 이루지도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당 문헌의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蓋~也’의 형식으로 인용된 구절의 의미를 해설하는 것은 바로 고문의 특징이다. 최치원은 의도적으로 고문의 형식을 도입함으로써 변려문의 형식을 깨고 있는 것이다.

<무염화상비명(無染和尚碑銘)>⁵⁰⁾에서는 앞서 보이던 형식의 균열이 대폭 확장되어 나타난다.

| | |
|---------------|---|
| 憶得西漢書留侯傳况云 | 『한서(漢書)』 <유후전(留侯傳)>의 말미에 |
| 良所與上從容言天下事甚衆 | “장량(張良)이 주상과 함께 천하의 일에 대해 조용히 말한 적이 매우 많았지만 |
| 非天下所以存亡 | 천하의 존망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
| 故不著 |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한 말이 생각났다. |
| 則大師時順間事蹟筆筆者星繁 | 그러니 대사의 일생 중 뛰어난 사적이 별처럼 많지만 |
| 非所以警後學 | 후학을 일깨우는 일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
| 亦不書 | 또한 기록하지 않는다. |

여기서는 오히려 변려문의 규칙성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형식이 무너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는 『한서(漢書)』의 구절을 인용하여⁵¹⁾ 무염화상을 장량(張良)에 견주는 한편 자신을 사관(史官)에 견주었다. 이때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장량[良]’과 ‘주상[上]’에 해당하는 두 글자를 삽입했을 뿐 『한서』의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로 인해, 두 구씩 쌍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수(字數)의 격식에 완전히 엄매이지 않는 양상을 보여주게 되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주목되는 점은, ‘~가 매우 많았지만[甚衆], ~가 아니었으므로[非], 기록하지 않았다[不著]’라는 『한서』의 형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가 매우 많지만[星繁], ~가 아

50) 최치원 『고운집』 권2, <無染和尚碑銘>.

51) 『漢書』 권40 <張陳王周傳>, “所與從容言天下事甚衆, 非天下所以存亡, 故不著.”

니면[非], 기록하지 않는다[不書].’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 구 혹은 두 구의 경계를 뛰어넘어 세 구와 세 구가 서로 조응하고 있는 형식으로서, 고문의 수사기법에 해당한다.

이러한 균열은 비단 문헌 인용에서 그치지 않는다. 최치원은 대화나 서사 등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과감히 변려문의 형식을 포기하는 모습까지 보여준다.

- [1] 乃以龍年羊月庚申夜夢 용년(龍年 908년) 양월(羊月 6월) 경신일(庚申日 20일) 밤에 꿈을 꾸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於達佛城北摩頂溪寺 달불성(達佛城) 북쪽에 있는 마정계사(摩頂溪寺)에서
 觀一大像 살펴보니,
 坐蓮花座 큰 불상이 연화좌에 안치되어 있는데
 峻極于天 하늘 끝까지 높이 잇닿아 있고
 左面有補處菩薩 좌측에 있는 보처보살(補處菩薩)도
 高亦如之 높이가 이와 같았다.
 南行於溪訖 남쪽으로 가다가 시냇가에 이르러
 見一女子 한 여자를 보고는
 因訊擘容所以然 불상이 그렇게 된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優婆夷答曰 그 우바이가 대답하기를
 是處是聖地也 “이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又見城南佛山上 또 살펴보니, 성 남쪽에 있는 불산(佛山) 위에
 有七彌勒像 일곱 기의 미륵 불상이
 累體蹈肩 몸을 포개고 어깨를 밟으며
 面北而立 북쪽을 향하고 서 있는데
 其高挂空 그 높이가 하늘까지 우뚝 솟아 있었다.
- [2] 後踰數夕復夢 며칠 밤이 지난 뒤에 다시 꿈을 꾸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於城東獐山 성 동쪽에 있는 장산(獐山)에서
 見羅漢僧披毳衣 살펴보니, 나한승이 취의(毳衣)를 입고
 以玄雲爲座 검은 구름 위에 앉아 있는데

抱膝面稱可其山口云 무릎을 안고 그 산의 어귀가 되는 지점을 바라보
며 말하기를,
伊處道由此地 “이처도(伊處道)⁵²⁾가 이곳을 경유하여
領軍來時矣 군사를 거느리고 올 때가 되었다.”라고 하였다.⁵³⁾

이는 <신라수창군호국성팔각등루기(新羅壽昌郡護國城八角燈樓記)>의 일부분이다. 이 글은 908년 10월에 호국의영도장(護國義營都將) 중알찬(重闕粲) 이재(異才)가 팔각등루(八角燈樓)를 완공한 뒤 기문을 부탁하여 지어준 글로서, 현재까지 남아 있는 최치원의 글 중에서 가장 최후의 작품으로 여겨진다.⁵⁴⁾ 위의 인용문은 이재의 두 가지 꿈에 대해 서술한 대목으로, 이는 팔각등루를 건립하는 계기가 된다.

첫 번째 꿈[1]의 배경은 달불성(達佛城) 북쪽의 마정계사(摩頂溪寺)와 그 남쪽의 불산(佛山)이다. 먼저 이재는 마정계사에서 하늘 끝까지 닿을 듯 까마득한 높이의 큰 불상과 보처보살(補處菩薩)을 보았고, 남쪽으로 이동하다가 한 우바이를 만났으며, 불산 위에 일곱 기의 미륵 불상이 몸을 포개고 어깨를 뚫은 채 하늘 높이 우뚝 솟아 있는 것을 보았다. 두 번째 꿈[2]의 배경은 성 동쪽의 장산(獐山)이다. 이재는 그곳에서 취의(毳衣)를 입고 있는 나한승을 만났는데, 그는 검은 구름 위에 앉은 채 무릎을 안고서 불법을 일으킬 열사가 곧 이곳에 올 것이라는 예언을 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이재의 시선을 통해 전달되는데, 공간의 이동에 의해 역동성이 생긴다. 동시에 불상들이 모두 하늘에 닿을 만큼 매우 높았다는 묘사와 이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불상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우바이의 대답, 그리고 불법을 일으킬 열사가 곧 도달할 것이라는 나한승의 예언을 통해 불법의 영험함을 표상하는 방향으로 수렴된다. 이때, 불상들의 높이가 매우 높았다는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면서도 ‘峻極于天’, ‘高亦如之’, ‘其高挂空’라는 각기 다른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高亦如之’와 ‘其高挂空’은

52) 伊處道에 대해 “목숨을 마쳐 불법을 일으킨 열사이다.[殉命興法之烈士也]”라는 原註가 달려 있다.

53) 최치원, 『고운집』 권1, <新羅壽昌郡護國城八角燈樓記>; 『동문선』 권64.

54) 이문기, 「『新羅 壽昌郡護國城 八角燈樓記』로 본 新羅末 大邱 豪族 再論」, 『동방한문학』 제 63집, 동방한문학회, 2015; 이문기, 「崔致遠의 현실 인식과 『新羅 壽昌郡護國城 八角燈樓記』의 찬술 배경」, 『신라사학보』 제50호, 신라사학회, 2020.

변려문에서 사용되지 않는 고문식 표현법이다. 또한 우바이의 대답과 나한승의 예언을 직접 인용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문면에 제시함으로써 현장감을 높이고 있는데, 이 역시 변려문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표현법이다.

이러한 서술 양상은 <무염화상비명>에서도 거듭 확인된다.

| | |
|------------|-------------------------------------|
| 乾符三年春 | 건부(乾符) 3년(876, 현강왕2) 봄에 |
| 先大王不預 | 선대왕(先大王 경문왕)이 환후(患候)가 좋지 못하자 |
| 命近侍曰 | 근시(近侍)에게 명하기를, |
| 亟迎我大醫王來 | “우리 대의왕(大醫王)을 얼른 모셔 오도록 하라.” 하였다. |
| 使至 | 사신이 이르자 |
| 大師曰 | 대사가 이르기를, |
| 山僧足及王門 | “산승의 발길이 왕문(王門)에 이르는 것은 |
| 一之謂甚 | 단 한번이라도 심하다고 할 것이다. |
| 知我者 | 나를 아는 자는 |
| 謂聖住爲無住 | ‘성주(聖住)를 ‘일정한 거처가 없다(無住)’고 할 것이요, |
| 不知我者 | 나를 알지 못하는 자는 |
| 謂不染爲有染乎 | ‘무염(無染)을 ‘오염되었다(有染)’고 할 것이다. |
| 然顧與吾君有香火因緣 | 그러나 돌이켜 보면, 우리 임금과는 향화(香火)의 인연이 있고, |
| 初利之行有期矣 | 도리천(初利天)으로 떠나실 날이 정해져 있으니, |
| 盍就一訣 | 어찌 한번 가서 영결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

위의 인용문은 경문왕의 병세가 악화되어 사신을 통해 무염화상을 궁궐로 부르자, 무염화상이 그에 응답한 대목이다. 여기에서 최치원은 ‘승려가 왕실에 초청에 응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사실과 ‘인연이 있는 관계인 만큼 직접 가서 영결하는 것이 도리상 마땅하다.’라는 사실, 이 두 가지 대립되는 상황을 제시함에 있어 고문의 표현을 활용하였다. ‘一之謂甚’이라는 표현은 『춘추』에 보이며,⁵⁵⁾ ‘知我者, ~; 不知我者, ~.’라는 구문은 『시경』이나 『맹자』 등에 보인다.⁵⁶⁾ 이때 최치원은 자수의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55) 『春秋左氏傳』 僖公 5年條, “晉侯復假道於虞以伐虢, 宮之奇諫曰: ‘虢, 虞之表也, 虢亡, 虞必從之. 晉不可啓, 寇不可翫. 一之謂甚, 其可再乎? 諺所謂『輔車相依, 唇亡齒寒』者, 其虞虢之謂也.’”
 56) 『詩經』, 『王風』, <黍離>, “知我者, 謂我心憂; 不知我者, 謂我何求, 悠悠蒼天, 此何人哉!”; 『孟

해당 표현을 문맥에 맞게 변용하여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였다. 특히 사찰의 이름인 ‘성주(聖住)’와 대사의 법호인 ‘무염(無染)’을 활용하여, ‘성주(聖住)’가 ‘무주(無住)’가 되고 ‘무염(無染)’이 ‘유염(有染)’이 될 것이라는 언어 유희를 펼치기도 하였다. ‘使至’라는 두 글자로 한 구를 구성함으로써 사건 전개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최치원이 사륙과 대장의 구식 및 평측 등 공교로운 조탁(彫琢)을 배제하고, 현재 진행되는 사건 전개에 집중하여 비교적 담담하고 평이하게 서술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변려문의 형식의 구애받지 않고, 대상 인물이나 사건을 실감나게 부각시킬 수 있도록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렇다면 최치원의 귀국 후 산문에 변려문의 정격에서 벗어난 새로운 문체가 나타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본고에서는 우선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에서 두 가지 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자로는 당시 중국 문단의 상황, 후자로는 중국 문인과의 직·간접적 교류가 그것이다.

먼저 거시적 차원에서 당시 중국 문단의 상황을 살펴보자. 그간 ‘고문운동(古文運動)’이라 하면, 흔히 변려문과 고문 사이의 격렬한 대립을 연상해 왔다. 그러나 최소한 당대(唐代)까지는 변려문과 고문의 관계가 그리 배타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새로이 입증되고 있다. 고문가(古文家)들이 비판했던 것은 변려문이라는 ‘문체’가 아니라, 부미(浮靡)한 ‘문풍’이었다는 것이다.⁵⁷⁾ 그 근거로서 고문운동의 영수(領袖)라 할 수 있는 한유(韓愈, 768~824)와 유종원(柳宗元, 773~819)이 상당히 많은 수의 변려문 작품을 창작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⁵⁸⁾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소영사(蕭穎士, 717~

子, 「告子下」, “孔子爲魯司寇, 不用, 從而祭, 燔肉不至, 不稅冕而行, 不知者, 以爲爲肉也; 其知者, 以爲爲無禮也. 乃孔子則欲以微罪行, 不欲爲苟去, 君子之所爲, 衆人固不識也.”

57) 房本文, 「士族興衰與駢散消長: 唐代古文運動發微」, 南京大學 博士學位論文, 2013, 13~14면. 이 논문은 책으로도 출판되었다(房本文, 『唐代古文運動發微』, 合肥: 安徽大學出版社, 2018).

58) 沙紅兵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한유의 경우, 남아 있는 350여 편의 문장 중 35편 정도가 변려문에 해당하며, 유종원의 경우, 문집에 있는 2권 분량의 啓, 2권 분량의 表, 1권 분량의 奏狀이 모두 변려문이고 69편의 碑志文 중 최소 7편, 30편의 祭文 중 12편, <永州八記>를 제외한 17편의 기문 중 6편이 변려문이며 書·序·銘 등에도 변려문이 일부 섞여 있다고 하였다. 沙紅兵, 『唐宋八大家駢文研究』, 北京: 人民文學出版社出版社, 2008(房本文, 위의 논문, 20~21면에서 재인용). 게다가 房本文은, 한유와 유종원이 작성했던 制誥·詔令 등의 문장이 거의 망실되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현재 남아 있는 편린을 통해 추측해볼 때 오늘날

768) · 이화(李華, 715~766) · 독고급(獨孤及, 725~777) 등의 고문가 또한 적지 않은 변려문 작품을 남겼다는 점⁵⁹⁾을 통해서, 고문가들이라 해서 변려문 창작 자체에 대해 그리 비판적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변려문과 고문의 관계를 새로이 이해할 전환점을 마련해 준다.

이와 더불어, 성당(盛唐) 이후 진행되었던 변려문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 변려문은 고문운동의 영향으로 고문의 장점을 흡수하여 그 내용과 형식에 변화를 줌으로써 화려함을 없애고 질실(質實)함에 나아가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그 이전의 변려문과는 다른 면모를 지니게 되었다.⁶⁰⁾ 그 변화로는 첫째, 대장을 이루는 단련(單聯) 혹은 복련(複聯)의 지수가 길어지는 것, 둘째, 쌍구대(雙句對)가 네 구 이상에 확장되어 유구(類句)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 | |
|---|--|
| <p>[1] 蓋不知來求之下者 不足以收特達之士 而不知成身之末者 不足以承賢達之遇 審矣</p> | <p>찾아와 부탁하는 것이 하책(下策) 임을 모르는 자는 출중한 선비를 거둘 수 없고 성공하는 것이 지엽적임을 모르 는 자는 현달한 자의 대우를 받을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⁶¹⁾</p> |
|---|--|

| | |
|--|--|
| <p>[2] 將行不拔異 操不砥礪 學不該廣 文不炳耀 實可鄙而薄耶</p> | <p>행실이 남달리 빼어나지도 못하고 지조를 갈고 닦지도 못하고 학문이 해박하지도 못하고 문장이 빛나지도 못하여 실로 알잡아 볼 만한 것입니까?⁶²⁾</p> |
|--|--|

[3] 抑又聞之 또 듣건대,

우리가 집계할 수 있는 수량보다 훨씬 더 많이 변려문을 창작했을 것이라 보았다. 위의 논문, 21면.

59) 위의 논문, 21면.

60) 변려문의 변이 양상에 대해서는 莫道才, 앞의 책, 12~13면 참조.

61) 柳宗元, 『唐宋八大家文鈔』 권4, <上大理崔大卿應製學啓>.

62) 柳宗元, 『唐宋八大家文鈔』 권4, <上權德輿補闕溫卷啓>.

不鼓踊 無以趨泥塗 높이 뛰지 않으면 진창길을 넘을 수 없고
 不曲促 無以由險巖 몸을 굽히지 않으면 험난함을 헤쳐 나갈 수 없고
 不守常 無以處明分 상도를 지키지 않으면 분명한 본분에 처할 수 없고
 不執中 無以趨夷軌 중도를 지키지 않으면 평탄할 길을 걸어갈 수 없
 고 하였습니다.⁶³⁾

[1]~[3]은 모두 유종원의 글이다. [1]은 그 첫 번째 변화로서, 대장을 이루는 복련이 각기 16자로 구성되어 있어 자수가 상당히 늘어난 양상이 확인된다. [2]는 그 두 번째 변화로서, 일반적인 쌍구대는 두 구가 짝을 이루는 것에 반해, ‘行不拔異’·‘操不砥礪’·‘學不該廣’·‘文不炳耀’ 네 구가 짝을 이루고 있는 양상이 확인된다. 이는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장을 이루는 복련이 각기 8자로 길어지는 동시에 쌍구대가 네 구에 확장되어 나타나는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전고의 사용을 지양하고 평실(平實)하게 서술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된다.

이러한 서술 양상은 최치원에게서도 확인된다.

[1] 或有以胡香爲贈者 則以瓦載糖灰 不爲丸而燻之曰 吾不識是何臭 虔心而已
 復有以漢茗爲供者 則以薪爨石釜 不爲屑而煮之曰 吾不識是何味 濡腹而已
 혹 호향(胡香)을 선물하는 자가 있으면, 질화로에 잿불을 담아 환(丸)을 만들지도 않고 사르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알지 못한다. 그저 마음을 경건히 할 따름이다.” 하였으며, 또 중국차를 올리는 자가 있으면, 돌솥에 불을 지피고는 가루로 만들지도 않고 달이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 맛이 무슨 맛인지 알지 못한다. 그저 배속을 적실 따름이다.” 하였다.⁶⁴⁾

[2] 吾子口囁古賢書 그대는 입으로 옛 성현의 글을 완미하였고
 面飲今君命 면전에서 금상(今上)의 명령을 받들었으며
 耳饒國師行 귀로 국사(國師)의 행적을 실컷 들었고
 目醉門生狀 눈으로 문생(門生)의 행장을 취하도록 보았다.⁶⁵⁾

63) 위의 글.

64) 최치원, 『고운집』 권2, <眞監和尚碑銘>.

65) 최치원, 『고운집』 권2, <無染和尚碑銘>.

행장에 드러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고안해 낸 표현법으로, 수사(修辭)에 치우쳐 본 뜻을 짚진하게 전달하지 못했던 이전 시기 변려문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이와 같은 내용의 중시는, 고문운동의 정신과 상통하는 지점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적어도 당대(唐代)까지는 변려문과 고문의 관계가 그리 배타적이지 않았음을, 그리고 변려문이라는 문체 자체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유동성을 지니고 있어 고문의 장점을 흡수하며 스스로를 개량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덧붙여, 주의류 산문과 잡기류 및 비지류 산문 사이에 나타나는 장르 자체의 특성에 대해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주의류 산문의 경우, 수신자가 최고 통치자인 임금이나 천자로 상정되어 있는 만큼 정형화된 구성과 상투적인 표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물론, 그 안에서 개인의 의론을 개진하기는 하지만, 실용적인 목적에 의해 지어진 공문이기 때문에 형식이나 표현의 측면에서는 많은 제약을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다.⁶⁷⁾ 고문 사용이 보편화된 이후에도 주의류 산문은 계속해서 변려문의 문체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⁶⁸⁾

그에 비해 잡기류 및 비지류는 어느 정도 정형화된 구성이 있기는 하지만,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었다. 최치원의 잡기류 중 현존하는 것은 모두 건축수조기(建築修造記)로, 누대나 사찰과 같은 건축물을 찬경하거나 중수한 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집필한 것이다. 기문을 작성할 때, 기사(記事)를 위주로 할 것인지 의론(議論)을 위주로 할 것인지 혹은 변려문의 문체로 작성할 것인지 고문의 문체로 작성할 것인지 등은 작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다. 비지류는 한 인물의 생애와 행적을 다루는 양식으로, 실제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창작 원칙은 있지만 한 인물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다양한 서술 방식과 표현이 허용된다. 이

67) 공문이 변려문의 문체로 작성되었던 이유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예술성에 초점을 두어, 낭독하기 좋고典雅한 풍격을 표현해 내기가 수월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박영희는 화용론적 측면에 주목하여, 套式語와 典故 나열로 다른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들을 단일한 하나의 의미로 환원시킨다는 기능에 주목하였다. 박영희, 「古代 公文이 駢儷 文體로 쓰여진 이유에 대한 재고찰: 韓愈와 李商隱의 表文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제93집, 한국중국학회, 2020.

68) 上行文字에서의 변려문 사용 양상에 대해서는 심경호, 앞의 논문, 251~258면 참조.

를 통해 볼 때, 최치원은 이러한 장르의 태생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의류 산문에서는 정격 변려문으로 작성하고 잡기류 및 비지류에서는 시대적 조류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문체를 시험해보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미시적 차원에서 중국 문인과의 직·간접적 교류를 살펴보자. 이때 간접적 교류란 서적 등과 같은 매개체를 통한 교류를 말한다. 우선 간접적 교류로서 『문선(文選)』의 학습을 들 수 있다. 『문선』은 중국 남조(南朝) 양(梁)나라 소명태자(昭明太子) 소통(蕭統, 501~531)의 주도로 편찬된 문장 선집이다. 중국에서는 남북조를 통일한 수(隋)나라를 거쳐 당(唐)나라에 이르면 ‘선학(選學)’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문선』이 지식인의 문장과 문학 공부의 필수 교과서가 되었다.⁶⁹⁾ 신라에서도 신문왕 2년(682)에 국학을 설치할 때 『주역(周易)』·『상서(尙書)』·『모시(毛詩)』·『예기(禮記)』·『춘추좌전(春秋左傳)』 등과 함께 『문선』이 그 주요 교과목으로 배정되었음⁷⁰⁾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치원은 『문선』을 적극 학습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문선』에는 5편의 비문이 실려 있다.⁷¹⁾ 이들 비문은 전반적으로 변려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변려문의 형식에 다소 어긋나는 일부 구절이 발견되어 흥미롭다.⁷²⁾

| | |
|-----------------|---|
| 宋大明五年 | 송(宋) 대명(大明) 5년(461)에 |
| 始立方丈茅茨 | 방장(方丈)의 초옥을 처음으로 세워 |
| 以庇經像 | 불경과 불상을 보호하였다. |
| 後軍長史江夏內史會稽孔府君諱覲 | 후군장사(後軍長史)이자 강하군(江夏郡)의 내사(內史)인 회계(會稽) 사람 부군(府君) |

69) 『文選』의 위상과 체제에 대해서는 김영식 외, 「해제」, 『문선 역주』 1, 소명출판, 2010, 1~57면 참조.

70) 『三國史記』 권38, 「雜志」 제7, <職官 上>.

71) 蔡伯喈, 『文選』 권58, <郭有道碑文>; 蔡伯喈, 『文選』 권58, <陳太丘碑文>; 王仲瞞, 『文選』 권58, <楮淵碑文>; 王簡棲, 『文選』 권59, <頭陀寺碑文>; 沈休文, 『文選』 권59, <齊故安陸昭王碑文>.

72) 이는 唐 이전 시기의 변려문이 字數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고, 平仄을 엄격하게 강구하지 않았던 특성에서 비롯할 것이다. 王力, 앞의 책, 146면; 심경호, 『한문산문미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3, 78면 참조. 그러나 唐 이전 시기의 변려문 중에서도 자수와 평측을 비교적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는 작품이 보이므로, 이 시기 변려문 형식을 일률적으로 논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
|--|--|
| <p>爲之薙草開林 置經行之室</p> <p>安西將軍郢州刺史江安伯濟陽蔡使君諱興宗</p> <p>復爲崇基表刹 立禪誦之堂焉 以法師景行大迦葉 故以頭陀爲稱首</p> | <p>공기(孔覲)가 법사를 위해 풀을 깎고 산림을 열어젓히고 수행을 위해 돌아다닐 만한 선실을 마련 하였다.</p> <p>안서장군(安西將軍)이자 영주자사(郢州刺 史)이며 강안현(江安縣)의 백작인 제양(濟 陽) 사람 자사(刺史) 채흥종(蔡興宗)이 또 법사를 위해 터를 다져 불탑을 만들고 좌선하고 송경하는 법당을 세웠다. 법사가 대가섭(大迦葉)을 존모하였기 때문에 '두타(頭陀)'라는 말로 절의 명칭을 삼았다.⁷³⁾</p> |
|--|--|

왕간서(王簡棲, ?~505)의 <두타사비문(頭陀寺碑文)>의 일부이다. 이 비문은 두타사(頭陀寺)의 창건 내력을 기술하고 있는데, 후세에 불교 관련 비문의 모범이 되었다.⁷⁴⁾ 위의 인용문은 석혜종(釋慧宗)이 방장(方丈)의 초옥을 세우자, 자사 채흥종(蔡興宗)이 불탑과 법당을 세운 뒤 '두타(頭陀)'라고 절 이름을 정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가섭(大迦葉)을 존모하였기 때문에 절 이름을 두타사라 하였다는 것은, 석가의 십대 제자(十大弟子) 중 한 사람이었던 마하가섭(摩訶迦葉)이 '두타제일(頭陀第一)'이라 칭해졌던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때 제4행~제6행과 제7행~제9행이 'S / {爲之/復爲}□□□□ / {置/立}□□之{室/堂}(焉)'이라는 형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대장을 이룬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글자 수가 제각기 달라 엄밀한 대장을 이루지 못한다. 게다가 한 구 혹은 두 구의 경계를 뛰어넘어

73) 王簡棲, 『文選』 권59, <頭陀寺碑文>. 번역은 김영식 외, 『문선 역주』 9, 소명출판, 2010, 381~404면을 참고하였다.

74) 선행연구에서 최치원이 王簡棲(?~505)의 <頭陀寺碑文>, 王勃(650~675)의 <梓州通泉縣惠普寺碑>, 李商隱(812~858)의 <唐梓州慧義精舍南禪院四證堂碑銘> 등의 영향을 받아 변러문 문체의 비문을 작성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심경호, 앞의 책, 175~193면). 본고는 최치원이 <頭陀寺碑文>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되, 정격 변러문이 아닌 비변러문적 요소에서 그 영향력을 감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梓州通泉縣惠普寺碑>와 <唐梓州慧義精舍南禪院四證堂碑銘>은 비변러문적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 정격 변러문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적어도 문체의 측면에서는 四山碑銘과 이질적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세 구와 세 구가 서로 조응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변려문의 기본 형식을 벗어나 있다.

이러한 면모는 왕중보(王仲寶, 452~498)의 <저연비문(褚淵碑文)>에서도 확인된다.

| | |
|------------------|-------------------------------|
| 選尚餘姚公主 | 간택되어 여요공주(餘姚公主)에게 장가들어 |
| 拜駙馬都尉 | 부마도위(駙馬都尉)에 제수되었다. |
| 漢結叔高 | 한(漢)나라가 두숙고(竇叔高)를 사위로 맞이하고 |
| 晉媿武子 | 진(晉)나라가 왕무자(王武子)를 사위로 맞이했던 것은 |
| 方斯蔑如也 | 공과 비교하면 별것 아니었다. |
| ... | ... |
| 事寧 | 사태가 안정되자 |
| 領太子右衛率 | 태자우위솔(太子右衛率)을 겸임케 하였으나 |
| 固讓不拜 | 굳게 사양하여 임명되지 않았다. |
| 尋領驍騎將軍 | 이윽고 효기장군(驍騎將軍)을 겸임케 하니 |
| 以帷幄之功 | 책략을 바친 공로로 임명되어 |
| 膺庸祗之秩 | 공경 받는 지위를 얻었다. |
| 封雩都縣開國伯 | 우도현개국백(雩都縣開國伯)에 봉해졌으며 |
| 食邑五百戶 | 봉읍이 500호였다. |
| ... | ... |
| 久之 | 한참 있다가 |
| 重爲侍中 | 다시 시중(侍中)이 되고 |
| 領右衛將軍 | 우위장군(右衛將軍)을 겸임하자 |
| 盡規獻替 | 성심껏 간언하였다. |
| ... | ... |
| 徵爲吏部尙書 | 공을 불러 이부상서(吏部尙書)에 임명하고 |
| 領衛尉 | 위위(衛尉)를 겸임케 하였으나 |
| 固讓不拜 | 굳게 사양하여 임명되지 않자 |
| 改授尙書右僕射 | 바꾸어 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에 제수하였다. |
| ... | ... |
| 太宗卽世 | 태종(송 명제(宋明帝))께서 붕어하실 적에 |
| 遺命以公爲散騎常侍中書令護軍將軍 | 유명을 남겨 공을 산기상시(散騎常侍) 중서령(中書令) |

호국장군(護軍將軍)으로 삼게 하였다.

...

...

公之登太階而尹天下
君子以爲美談

공이 삼공의 자리에 올라 천하를 잘 다스리자
군자들이 이를 미담으로 삼았다.

...

...

丁所生母憂
謝職

모친의 상을 당하여
관직을 그만두었다.⁷⁵⁾

이 글은 송 문제(宋文帝)의 사위였던 저연(褚淵, 434~482)의 비문이다. 위의 인용문은 저연의 관직 이력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때 주목되는 점은 전체적으로 정제된 변려문의 문체를 사용하면서도, 중간 중간에 이처럼 변려문의 격식에 맞지 않는 문체 또한 섞어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관직명을 문면에 직접 제시함으로써 정보를 전달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것이다.

이상 두 가지 사례에서 살펴본 문체는, 본고의 제3장 제2절에서 살펴본 최치원의 문체와 상당히 닮아 있다. 이로부터 두 가지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 한 편의 글에서 문체를 판별할 때 단순히 ‘변려문’ 혹은 ‘고문’이라는 이분법으로 재단할 수 없을 정도로 변려문적 요소와 고문적 요소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점, 둘째, 최치원이 『문선』 학습 과정에서 이러한 문체를 충분히 학습했을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어서 중국 문인과의 직접적 교류와 이로 인한 고문에 대한 인식을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기존 연구에서는 최치원의 시문에 한유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최치원과 고문 사이에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을 것이라 상정했다. 그러나 한유가 고문운동을 전개하기 100년 전부터 변려문에 반대하는 고문의 투쟁이 일찌감치 싹트고 있었으며,⁷⁶⁾ 한유는 그 고문운동집단의 3세대에 해당한다.⁷⁷⁾ 즉, 한유를 차치하더라도, 최치원이 중국에서 교류한 다른 인사들을 통해 고문에 대한 인식을 키웠을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75) 王仲寶, 『文選』 권58, <褚淵碑文>. 번역은 김영식 외, 『문선 역주』 9, 소명출판, 2010, 347~378면을 참고하였다.

76) 錢冬父 지음, 이주혜 옮김, 『당송고문운동』, 학고방, 2009, 9~18면.

77) 조은상, 『唐代 고문운동 집단에 대한 재토론』, 『중국학보』 제49집, 한국중국학회, 2004, 120면.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치원의 교유 인물 중 장교(張喬), 두순학(杜荀鶴), 나은(羅隱)에 주목한다.⁷⁸⁾

우선 장교(張喬)의 경우, 소위 ‘방림십철(芳林十哲)’로 일컬어지며 당시에 이미 재능을 널리 인정받았는데, 두순학(杜荀鶴)도 그를 ‘시우(詩友)’로 일컬으며 그의 시가 훗날 시인들의 사범(師範)이 될 것이라 칭송하였고, 정곡(鄭谷) 또한 그로 인하여 당시의 문단에 고풍(古風)이 일어났다고 칭송한 바 있다.⁷⁹⁾ 두순학(杜荀鶴)의 경우, 만당 후기 시인 중 성취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인정되며, 피일휴(皮日休)와 함께 한유의 고문운동을 이어받았다고 평가된다.⁸⁰⁾ 나은(羅隱)은 만당(晚唐)의 유미파(唯美派)와는 달리 백거이(白居易)의 현실주의를 따른 시인으로, 고문운동의 현실주의 측면을 발전시켰다고 평가된다.⁸¹⁾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변려문과 고문이 서로 같은 지향을 가지고 변화하는 시대적 조류 속에서, 고문가들이 변려문 작품을 창작했듯이 변문가들 또한 변려문의 정형화된 형식에서 탈피하여 고문적 요소를 지닌 작품을 창작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특히 최치원은 무려 17년간 중국 유학 생활을 하면서 중국 내의 이러한 변화를 직접 보고 느꼈을 것이므로, 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짐작해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최치원이 중국 유학을 통해 다양한 문인들과의 직·간접적 교류를 통해 고문에 대한 인식을 싹틔웠으며, 귀국 후 주의류 산문과 같은 공식 문서 외에 잡기류 및 비지류 산문 등 비교적 창작의 자유가 허용되는 작품을 창작할 수 있게 되자, 변려문과 고문의 문체가 혼합된 새로운 문체의 글을 탄생

78) 최치원과 張喬·杜荀鶴·羅隱의 교유 관계는 方曉偉, 「崔致遠和他的友人」, 앞의 책, 131~134면 참조. 특히 두순학과 나은은 『十抄詩』에 최치원과 함께 실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책은 唐나라 말기의 대표적 시인 26명과 이 시기에 入唐하여 수학한 新羅의 賓貢諸子 4명, 도합 30인의 7년 율시를 각기 10수씩 뽑아 만든 詩選集이다. 『十抄詩』에 대해서는 김은정, 「『十抄詩』를 통해 본 羅末麗初 한시 수용 양상」, 『한국한시연구』 제20호, 한국한시학회 2012 참조.

79) 杜荀鶴, 『唐風集』 권1, <維揚逢詩友張喬>, “天下方多事, 逢君得話詩. 直應吾道在, 未覺國風衰. 生計吟消日, 人情醉過時. 雅篇三百首, 留作後來師.”; 鄭谷, 『雲臺集』 권1, <訪題進士張喬延興門外所居>, “平生苦節同, 旦夕會原東. 掩卷斜陽裏, 看山落木中. 星霜今欲老, 江海業全空. 近日文場內, 因君起古風.” (남재철, 「고운 최치원의 晚唐詩壇에서의 위상」, 『진단학보』 제112호, 진단학회, 2011, 314~315면에서 재인용)

80) 崔藝花, 「晚唐詩在崔致遠的影響與接受」, 『人力資源管理』, 聊城大學外國語學院, 2010[5], 274면.

81) 錢冬父 지음, 이주해 옮김, 앞의 책, 91~92면.

시켰다고 본다.

IV. 결론

본고는 최치원의 산문을 변려문 일색으로 평가해 왔던 기존의 인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그의 산문에 나타나는 고문적 요소를 고찰하였다. 우선 최치원의 산문에서 변려문적 요소와 고문적 요소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변려문적 요소가 무엇인지, 그가 변려문에서 이룩한 성취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계원필경집』에 실린 글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평측과 대장을 엄격하게 지키면서도 그와 관련된 고사를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구체화하는 기교를 살필 수 있었다.

이어서 『고운집』과 『고운속집』의 글을 통해 그의 귀국 후 산문을 고찰하였다. 이때 재당 시기 산문과 같은 종류의 문체인 주의류(奏議類)와 다른 종류의 문체인 잡기류(雜記類) 및 비지류(碑誌類)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주의류의 경우, 여전히 정격 변려문의 문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 재당 시기 산문과 차이가 나지 않지만, ‘제잠(鯢岑)’이나 ‘신학(屨壑)’ 등 신라를 의미하는 용어를 최초로 고안하여 사용했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중국에 보내는 표문에서조차 신라에 대한 주체성이 드러난다는 사실은 그의 동인의식(東人意識)을 고찰함에 있어 진일보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발편을 마련한 셈이다. 잡기류와 비지류의 경우 변려문의 엄격한 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체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용의 출처가 되는 해당 원문을 가감 없이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대장과 평측 규칙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대화나 서사 등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과감히 자수의 제한까지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거시적 차원에서는 당시 중국 문단의 상황을, 미시적 차원에서는 중국 문인과의 직·간접적 교류를 제시할 수 있었다. 그간 ‘고문운동(古文運動)’이라 하면, 흔히 변려문과 고문 사이의 격렬한 대립을 연상해왔지만, 최소한 당대(唐代)까지는 변려문과 고문의 관계가 그리 배타

적이지 않았으며 고문가(古文家)들 또한 부미(浮靡)한 ‘문풍’에 대해 비판했지 변려문이라는 ‘문체’ 자체를 비판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성당(盛唐) 이후 고문운동의 영향으로 인해, 질실(質實)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변려문의 형식상·내용상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 속에서, 최치원이 『문선』을 통해 비문의 전범이라 할 수 있는 양(梁)나라 문인의 비문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동시대 인물인 장교(張喬)·두순학(杜荀鶴)·나은(羅隱) 등 당(唐)나라 문인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변려문과 고문이 결합된 새로운 문체의 글을 탄생시켰을 가능성을 상정하였다.

중국의 고문운동은 여러 사람들의 장기간의 분투 과정을 거쳤기에 ‘운동’이라는 명칭이 붙은바 최치원에게 ‘고문운동’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다. 그러나 재당 시기 그의 문장과 달리 귀국 후의 문장에서는 그 형식과 내용에서 모두 확연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변화하는 시대의 조류 속에서 그 또한 새로운 문체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정신이 고문운동과 맞닿아 있다. 본고를 발판으로 삼아 그의 산문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보다 세밀한 관찰과 분석이 진행된다면, 최치원의 위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

본고는 최치원 산문의 문체와 성격을 재고찰하려는 노력의 소산이다. 최치원의 고문 창작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처음으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 특히 최치원과 중국 문인과의 직·간접적 영향 관계를 좀 더 면밀히 살피지 못했으며, 최치원의 이러한 새로운 문체가 후대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혹은 최치원과 이제현 사이의 간극에 대해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등의 후속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앞으로 최치원의 산문을 보다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중국 문인과 면밀히 비교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해나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崔致遠, 『崔文昌侯全集』,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영인, 2000.
崔致遠 著, 李時人·詹緒左 編校, 『崔致遠全集』 上·中·下, 上海古籍出版社, 2018.
- 金澤榮, 『韶漢堂集』, 한국문집총간 347.
權近, 『陽村集』, 한국문집총간 7.
徐居正, 『東文選』, 民族文化刊行會, 1994.
徐有集, 『楓石全集』, 한국문집총간 288.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古典刊行會本.
李穡, 『牧隱藁』, 한국문집총간 3~5.
李瀾, 『星湖全集』, 한국문집총간 198~200.
李齊賢, 『益齋亂稿』, 한국문집총간 2.
崔致遠, 『桂苑筆耕集』, 한국문집총간 1.
_____, 『孤雲集』, 한국문집총간 1.
洪奭周, 『淵泉集』, 한국문집총간 293~294.
- 『廣弘明集』, 『大正藏』 52.
『大方廣佛華嚴經』, 『大正藏』 10.

- 김영식 외, 『문선 역주』 1·9, 소명출판, 2010.
이상현, 『계원필경집』 1·2, 한국고전번역원, 2009.
_____, 『고운집』, 한국고전번역원, 2009.
이우성 교역, 『신라 사산비명』, 아세아문화사, 1995.
정선용, 『국역 해동역사』, 민족문화추진회, 1998~2003.
최영성, 『교주 사산비명』 이른아침, 2014.

2. 단행본

- 심경호, 『한문산문미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3.
_____, 『한국의 석비문과 비지문』, 일조각, 2021.
이구의, 『최고운문학연구』, 아세아문화사, 2005.
錢冬父 지음, 이주해 옮김, 『당송고문운동』, 학고방, 2009.

- 莫道才 主編, 『駢文觀止』, 北京: 文化藝術出版社, 1997.
房本文, 『唐代古文運動發微』, 合肥: 安徽大學出版社, 2018.
方曉偉, 『崔致遠思想和作品研究』, 揚州: 廣陵書社, 2007.
沙紅兵, 『唐宋八大家駢文研究』, 北京: 人民文學出版社出版社, 2008.
王力, 『古漢語通論』, 香港: 中外出版社, 1976.
張仁青, 『駢文學』上, 臺北: 文史哲出版社, 1984.

3. 논문

- 김문기, 「崔致遠의 四山碑銘 연구: 실태조사와 내용 및 문체분석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 제15호,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87, 125~179면.
김은정, 「『十抄詩』를 통해 본 羅末麗初 한시 수용 양상」, 『한국한시연구』 제20호, 한국한시학회 2012, 5~40면.
김중렬, 「崔致遠 文學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4, 1~215면.
김철조, 「고려 중엽 한문 산문의 문체」, 『한문학보』 제18집, 우리한문학회, 2008, 85~120면.
남동신, 「『계원필경집』의 문화사적 이해」, 『진단학보』 제112호, 진단학회, 2011, 183~214면.
남재철, 「고운 최치원의 晚唐詩壇에서의 위상」, 『진단학보』 제112호, 진단학회, 2011, 291~319면.
문선희, 「高麗 14세기 『40華嚴經』 寫經變相圖 연구」, 『불교미술사학』 제5집, 불교미술사학회, 2007, 429~472면.
박영희, 「古代 公文이 駢儷文體로 쓰여진 이유에 대한 재고찰: 韓愈와 李商隱의 表文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제93집, 한국중국학회, 2020, 93~108면.
박우훈, 「駢儷文과 韻·散文의 關係」, 『중국산문연구집간』 제2집, 한국중국산문학회, 2012, 33~49면.
서정화, 「益齋 李齊賢의 古文倡導에 대한 재검토」, 『대동한문학』 제32집, 대동한문학회, 2010, 199~229면.
신동하, 「신라 불국토사상의 전개양상과 역사적 의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심경호, 「한국한문학의 변문 활용 문체와 그 역사문화상 기능」, 『한국한문학연구』 제77집, 한국한문학회, 2020, 225~300면.
유영봉, 「『四山碑銘』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柳鐸一, 「桂苑筆耕集의 文獻學的 照明」, 『孤雲의 思想과 文學』, 新知書院, 1977, 335~394면.

- 이구의, 「崔致遠의 ‘朗慧和尚碑銘’攷」, 『동방한문학』 제25집, 동방한문학회, 2003, 135~170면.
- _____, 「崔致遠의 ‘鳳巖寺智證大師碑文’攷」, 『한민족어문학』 제42집, 한민족어문학회, 2003, 31~60면.
- 이문기, 「『新羅 壽昌郡護國城 八角燈樓記』로 본 新羅末 大邱 豪族 再論」, 『동방한문학』 제63집, 동방한문학회, 2015, 149~185면.
- _____, 「崔致遠의 현실 인식과 『新羅 壽昌郡護國城 八角燈樓記』의 찬술 배경」, 『신라사학보』 제50호, 신라사학회, 2020, 287~312면.
- 이성호, 「홍석주의 고문본과 『계원필경집』 중간의 의미」, 『한국사상과 문화』 제78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15, 157~182면.
- 이영희, 「羅·麗代 駢儷文 研究」,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李仁榮, 「古書雜記」, 『春秋』 제2권 제6호, 朝鮮春秋社, 1941, 189~198면.
- 정선모, 「唐·宋古文의 初期受容樣相考: 對北宋外交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연구』 제48집, 한국한문학회, 2011, 11~50면.
- 정용수, 「동아시아 海洋神仙문화의 성립과정과 그 경로」, 『동양한문학회연구』 제31집, 동양한문학회, 2010, 317~337면.
- 조은상, 「唐代 고문운동 집단에 대한 재토론」, 『중국학보』 제49집, 한국중국학회, 2004, 119~135면.
- 진민희, 「조선조 「蜃樓記」 작품군 연구」, 『민족문화사연구』 제64호, 민족문화사연구소, 2017, 265~297면.
- 최영성, 「崔致遠 사상에서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 東人意識과 同文意識을 중심으로」, 『동양문화연구』 제4집,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09, 89~114면.
- 최원식, 「新羅 下代의 海印寺와 華嚴宗」, 『한국사연구』 제49집, 한국사연구회, 1985, 1~25면.
- 홍우흠, 「『桂苑筆耕』 所載 崔孤雲 駢文小考」, 『한국한문학과 유교문화』, 아세아문화사, 1991, 3~18면.
- 房本文, 「士族興衰與駢散消長: 唐代古文運動發微」, 南京大學 博士學位論文, 2013.
- 崔藝花, 「晚唐詩在崔致遠的影響與接受」, 『人力資源管理』, 聊城大學外國語學院, 2010[5], 274~275면.

Re-consideration on Choi Chi-won's Prose

Yu, Su-bi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aise questions about the existing perspectives that evaluated the prose of Choi Chi-won(崔致遠, 857~?) based on pianliwen(駢麗文) only and carry out a thorough review of the literary style and personality of his proses. Based on *Gyewonpilgyeongjip*(桂苑筆耕集), his prose collection written under the flag of Go Byeong(高駢, 821~887) during his stay in Tang China, all people from the literary men in the past to the contemporary researchers, have recognized Choi Chi-won as a writer of pianliwen. However, some proses different from rated pianliwen are captured in *Gwoonjip*(孤雲集) and *Gwoonsokjip*(孤雲續集) which were written after he returned to Shilla. On this paper, we tried to research the elements of pianliwen and the elements of ancient-style proses from his proses for the first time as he showed the slightly different literary style from the formal style since he returned to Shilla, unlike while he stayed in Tang China where he wrote only a formal pianliwen, and we thought it very important phenomenon regardless of the weight.

First, it was needed to identify clearly what the elements of pianliwen are, in order to classify the elements of pianliwen and the elements of ancient-style proses from the proses of Choi Chi-won. Through his proses on *Gyewonpilgyeongjip*, we could find his techniques that used the related idioms of ancient events properly while keeping Pyeongcheuk(平仄) and Daejang(對仗) strictly in order to clarify his intentions. We continued to study his proses written after he returned to Shilla through *Gwoonjip* and *Gwoonsokjip*. At this time, we examined the proses by classifying into Jueui type(奏議類) which is same style of the prose written during his stay in Tang China and different style Japgi type(雜記類) and Biji type(碑誌類). First, for Jueui type, we found that there was not a difference formally from his prose during his stay in Tang China but he created and used the terminology such as 'Jejam(鯤岑)' or 'Shinhak(蜃壑)' which means 'Shilla' for the first time which

showed a big difference in terms of the content. For Japgi type and Biji type, it was found that he showed new writing style away from the strict form of pianliwen. He could not obey the rule of Daejang and Pyeongcheuk as he quoted the original sentences as they are without adding or deleting from the sources of quotation, and even he did not follow the four-six letter rhyming couplets which is the basic form of pianliwen. This is explained that he focused on the contents rather than the form. As the background of this change, it is possible to present the situation of the Chinese literary world at the macro level and direct and indirect relationship with Chinese writers at the micro level. In short, it can be said that at least until the Tang Dynasty, the relationship between pianliwen(駢麗文) and ancient-style proses(古文) was not very exclusive, and the Chinese literary style was directly or indirectly accepted, creating a new style of writing.

In brief, this paper is the result of our efforts to reconsider the writing style and personality of Choi Chi-won's proses. Based on this paper, if more detailed observation and analysis were carried out about the form and contents of his proses, we will be able to look at the stature of Choi Chi-won and the history of Chinese-language literature of Korea in a new light.

keywords: Choi Chi-won(崔致遠), Pianliwen(駢麗文), Ancient-style proses(古文),
Gyewonpilgyeongjip(桂苑筆耕集), *Gwoonjip*(孤雲集), Consciousness as
Eastern people(東人意識)

| |
|---|
| 접수일자: 2021. 9. 30. 심사기간: 2021. 10. 1.~2021. 11. 10. 게재결정: 2021. 11. 10. |
|---|